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 12

지 / 역 / 사 / 회 / 특 / 아 / 소 / 인 / 압 / 회

서울시 중구 정동로 33-44 여성문화의 집 3층 (우) 100-731 ☎ 02 376-6505-6 FAX : 376-6506 ID : CNYD(창리연)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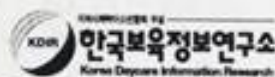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시입니다.



서울 중구 목장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 12

지 / 역 / 사 / 회 / 특 / 아 / 소 / 연 / 합 /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 275-8505~6 FAX : 275-8506 ID : GTY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6년 12월호

<통권 46호>



<표지사진>

초겨울 갈대밭에서의 야외수업중
해질무렵... 상기된 아이들의 모습속에
겨울은 깊어만 가고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워도
바깥 놀이는 즐겁기만 하다.

(사진 / 꽃들나라 놀이방 제공)

일하며 생각하며 / 4

일사람의 한걸음을 내딛었던 1996년... 지 은희

기획 특집 / 6

출발전 평등원칙 구현을 위한... 교개위

보육정책 / 16

보육사업 활성화 시행계획 편집부

저상강연 / 22

보육교사들의 견해와 주관적 이론 윤 선영

한 애플 돌아보다 / 31 편집부

실문조사 『우리네 아이들』 진단과 과제 / 34

편집부정리

소모임 『'96 한해 소모임을 정리하며 / 39

최 순옥

성교육-다치며 / 43

교육부

참관기 / 44

지 정희

어린이집 식단-겨울식단 / 46

오 경민

익숙대외 탐방기 / 48

위 양자

보육교사 실태조사 / 50

광주지역위원회

짜임새

현장소식 - 하나 / 54

최 은하

자연학습장을 다녀와서

현장소식 - 둘 / 56

김 영금

보육학교를 마치며

현장소식 - 셋 / 58

문 유미

계란으로 책상(?)치기

현장소식 - 넷 / 61

이 애용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을 읽고

탁아소 별곡 / 66

가람놀이방

음악정보 / 68

오 선영

“애는 애대로 재는 재대로”

좋은 그림책 소개 / 71

고 영미

『뛰어라 메뚜기』

건강하게 삽시다 / 75

어린이 건강연구회

“한몸짓기 건강요법(1)”

육아일기 / 82

나 은미

“유빈이는 당글당글해요”

우리들의 목소리 / 84

김 숙자

연구수업을 진행하며...

보육계 풍향 / 85

소식과 소식 / 87

편집부에서 / 92

1996년 12월호 합본호 (통권 46호)
첫발행 1992. 5. 25 / 피넛 지역사회학아소
연합회 / 피넛이 남미영 / 목은이 박정애, 정순
옥, 강예란 / 피넛날 1996년 12월 12일

일하며 생각하며

열 사람의 커다란 한걸음을 내딛었던
1996년을 보내며...

지 은 회(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996년이 저물어 갑니다.

매일 떠오르고 또 지는 태양이지만 년초의 태양과는 달리 이맘 때의 태양은 좀더 겸허해지고 들뜸이 아닌 차분함 속에 내일을 계획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지탁연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 실천하고, 새로운 조직건설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고 뛰었던 그 헌신적인 모습들이 96년을 보내는 섭섭한 마음을 덜어주는 듯 합니다.

또한 1명의 교사가 주변의 보육교사 1명을 만나 올바른 보육정책의 방향과 소신을 나누고 열의를 함께 나누었던 해였기에 힘들지만 외롭지 않았던 해입니다.

1996년은 지탁연에 있어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던 해입니다.

아무도 보육운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때 지탁연은 작지만 소신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올해는 바로 그 10년간의 보육운동의 성과를 차분히 평가하고 그 과제로서 새로운 교사 조직체의 귀중한 첫걸음을 내딛고 뛰어온 해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육사업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게 위해서 지탁연을 교사조직체로 새로이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그 벅찬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교사들 한 명 한 명이 주인이 되어 헌신하였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전국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와 소망에 귀기울여 올바른 보육정책을 생산하고 질 높은 어린이 집을 만들어가려는 야무진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 해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 앞에 결코 외롭게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같은 뜻을 가진 열사람이 공통의 호흡으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1997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일하는 많은 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 질 아이들, 그리고 올바른 보육운동, 보육정책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항상 지탁연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1996년을 보내는 지금, 또다른 10년을, 아니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지탁연의 숭고한 삶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1996년 12월
지 은 회

기획특집

출발점 평등 원칙 구현을 위한 유아교육 체제 개혁

교육개혁위원회

편집자주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5세아 무상교육'에 관한 교육개혁위원회의 공청회가 있었다. 이 글은 공청회 당일 주제발표된 교개위 안을 전문 그대로 실는다.

I. 개혁의 필요성

교육개혁위원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개혁안을 통하여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을 위한 터전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 예컨대, 5세아 모두에게 취학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보육시설의 교육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출생 이후 취학 전까지의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을 '수요자 중심'이라는 교육 개혁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의 유아교육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아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혜택을 받는 유아들이 적으며, 발달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유아교육은 무엇보다도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유아교육이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로 포함되지 못하고 대부분 각 가정의 판단과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제적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취원율이 지속되어 대부분의 유아들이 그 시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유아 부담으로 인하여 20대 후반과 30대 여성의 취업률은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초·중등 학교에서의 성취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기의 복지 비용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놓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2세 국민의 기초교육 부실, 유아교육 수혜의 불평등 확대 및 경제 참여 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유아교육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그나마 수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도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고 적재적소에 기관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세 이상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육에 보호를 더하여 '틈새 없는 체제(seamless system)'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유아교육 동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각종 학원이나 무허가 선교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기관에 따라 제반 교육 여건의 격차가 크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선택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2세 국민교육의 출발점은 유아기부터 불평등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기관의 선택은 통원 거리, 교육 내용의 질, 교육비 수준 및 운영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좋은 유아교육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육과 교육으로 그 기능이 양분되어 있으며,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유아를 둔 각 가정은 가까운 거리에, 좋은 교육 내용을, 저렴한 비용에,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해 주는 유아교육 기관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아기는 제반 성장·발달의 토대가 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잘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 교육예산의 상당한 액수를 유아교육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시기의 유아들에게 국가가 지향하는 인간상을 형성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출발점부터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 없이 모든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유아교육이 제공되는 출발점에서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유아교육의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출생이후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달하는 모든 유아들의 교육과 보호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 관리 체제의 확립,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원과 법적 토대의 마련 및 교육의 질

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곧 교육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다.

II. 유아교육 관련 개혁 경과

유아교육 관련 개혁은 1994년 9월5일에 발표한 1차 개혁안과 1995년 5월 31일에 발표한 2차 개혁안에 이미 그 터전을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5세아 유치원 무상 교육'은 1차 개혁안의 13면과 15면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5세아 유치원 무상 교육'은 교육개혁안을 실현하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도 있었지만, 제한된 유아교육 기회와 엄청난 유치원 교육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학부모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사립유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만큼 유아교육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생각은 일치하고 있으며 욕구 또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20일에 발표한 3차 교육 개혁안에 후반기 과제의 하나로 유아교육을 포함하고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당위성은 그 동안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보다 명백해 진다.

지금까지 두 번의 발표를 통해 제시된 유아교육 개혁안과 개혁안의 추진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개혁안

○ 1차 개혁안(1994. 9. 5)

- 13면 「2005년까지 만 5세 아동의 100%가 취학전 교육을 받도록 함」
- 15면 「유치원을 기본 학제에 편입시키고, 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

○ 2차 개혁안(1995. 5. 31)

- 48면 「보육기관의 유아교육 기능을 활성화하여 여성 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킴」
「기본생활습관교육을 길러 주기 위한 실천 위주의 교육을 의무화함」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유아교육 자료 및 교구를 개발하여 유아교육 기관에 보급함」

나. 추진 현황

○ 2005년까지 5세아 100% 취원

- 교육부 : 1996년 현재 45% 취원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임. 그러나 1998년까지

50%, 2005년까지 80%의 취원을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음.

○ 유치원교육의 기본학제 포함

- 교육부 : 5세아 취원율이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기본학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봄.

○ 저소득층의 유치원 교육 무상화

- 교육부 : 신한국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을 교육기본법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1998년부터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5세아 자녀에 대한 무상 교육 실시를 검토중임.

○ 보육 기관의 유아교육 기능 활성화

- 교육부 : 유치원의 보호 기능 보완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약1/4의 유치원이 종일반이나 연장 제 프로그램을 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1995년 16개소, 1996년 37개소). 1995년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나 회신이 없음.
- 복지부 : 교육기능도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히려 보육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 인력의 활용 증대 효과를 거두는 지원 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기본생활습관교육과 같은 실천 위주 교육의 의무화

- 교육부 :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본생활습관교육을 전 영역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매년 기본생활습관 교육활동자료 1종씩을 개발하여 전국 유치원에 보급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1996년도 1,300천명 실시).

○ 유아교육 자료 및 교구 개발

- 교육부 : 1996년 4종의 유아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국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함(1982년 이후 1995년까지 총 73종의 자료를 개발하여 전국 유치원에 보급).
- 복지부 : 1996년 교재 교구 개발에 6억, '1997년 보육 프로그램 개발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 중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안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도 있고,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 기회 즉, 취원율의 제고는 지속적인 담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유아교육 포함되지 못하고 예산도 전체 교육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회의 확대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성격의 과제를 두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료와 교구의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유아 대상 보육기관의 성격을 해석하는 견해가 박 부처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보육시설을 지원체제로 보느냐 준 교육기관으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 보호의 경계가 없는 즉, 통합된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동일한 연령의 유아에 대한 행정관리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효율적으로 또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급변 유아교육 개혁안은 지금까지 제안된 몇 가지의 개혁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또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유아교육의 현실을 뛰어 넘어설 수 있는 유아교육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III. 유아교육 개혁의 방향

앞에서 제시한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안 추진 상황을 토대로 설정한 유아교육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출발점 평등을 구현한다.

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은 3세 이상의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법에도 3세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들은 유치원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이 난무하고 양분화되어 있는 행정 체계로 인하여 어떤 교육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즉, 교육이 시작되는 최초의 지점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이상인 평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유아교육은 가능한 교육적 기능을 상향 조정하고 일원화 할 뿐 아니라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출발점 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 대상의 무허가 교육기관과 보육 시설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이 더 필요한 유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정비와 함께 이들을 위한 교육적 조치는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고 평가에 의해 진일보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뿐 아니라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평

가를 통해서 질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출발점에서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간 교육의 질을 상향 조정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이 동일한 수준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 관련 행정 업무를 통괄 조정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유아교육 관리 체제를 확립한다.

우리 나라는 출생이후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육을 유아에 대한 교육적 가치보다는 여성 취업을 위한 수단적 가치나 가정교육의 보완을 위해 실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가정의 형편과 판단에 따라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제한되고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2세 국민의 지적·정서적 토대의 격차가 심화되어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진 각국은 일찍이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과 후기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 지원 체제가 빈약하고 이원화된 행정 체계로 인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각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는 유아들이 많지 않고, 어떤 부처 관할 하의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토대 하에 서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지적으로 뛰어난 2세 국민을 키우기 위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통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적 차원의 행정 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동일한 연령의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출발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 관련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2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개혁안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유아교육 분야 개혁안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까지 5세 유아 100% 취원, 유치원 교육의 기간 학제 포함과 저소득층의 유치원 교육 단계적, 무상화, 보육 기관의 유아교육 기능 활성화, 기본생활습관과 같은 실천 위주의 교육 강화, 유아교육 자료와 교구의 개발·보급 등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개혁과는 달리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안들은 그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심 정도는 금년부터 시행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개혁 평가 항목에 유아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개혁의 추진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부족하고, 법적 토대가 구축되지 못했으며, 재정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이 유명무실한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되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IV. 유아교육 개혁안

1. 유아교육 수혜 범위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 유아교육의 수혜 범위 확대와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협력체제는 다음 2개의 안 중에서 보다 효율적인 안을 채택한다.

1안)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유아교육 진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아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유아교육 진흥 특별위원회'는 시장 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부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책임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책임자,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계자, 지역내 유아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를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안) 교육자치단체 주관으로 '유아교육 진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아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유아교육 진흥 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책임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책임자,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계자, 지역내 유아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를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유아교육 진흥 특별위원회'는 상시 설치·운영하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유아교

육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1997년까지 수립하고 향후 장·단기 발전 계획은 '1998년까지 수립한다.

- '유아교육 진흥 특별위원회'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 지역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상호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포함한다.

- 적재적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
-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아에게도 무상교육 혜택 부여
- 자치단체의 유치원 종일반 설치와 운영
- 유아방을 유치원 종일반이나 공공 보육시설로 흡수·운영
- 어린이집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단체의 장학과 자료 공유

○ 3세 이상 유아는 교육대상 유아로서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과정 수혜를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도록 한다.

-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과정은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의 기초 소양교육을 근간으로 연령별 유아 발달과 교육 및 보호 기능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고시하되,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치단체는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과정을 토대로 '유아교육 진흥 특별위원회'의 주관하에 유치원의 보호 기능과 어린이집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을 재편성 하도록 한다.

○ 유아 교원과 관련된 제반 체제 정비를 통하여 유아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 2년제와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되는 유치원 2급 정교사와 1년과정을 거쳐 양성되는 보육교사로 다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사의 학력과 수준과 양성체제를 조정하여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유아 교원의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방송통신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여서 편입·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진학 후 유아교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을 교육실습 관련 학점으로 인정한다.

* 단기과정으로 양성되는 보육교사는 산업체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나 보육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진학 후 보육시설의 경력을

현장 관련 학점으로 인정한다.

•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수학 연한을 3년제로 연장·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 동일한 자격의 유아 교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어느 기관에 근무하든 교사로서의 경력을 상호 인정하고, 상급 자격 취득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2. 유아교육 행정 관리 체제의 확립

○ 유아관련 행정은 다원화하되 관계 법령이나 정책 및 예산 등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내에 별도의 유아교육 담당 조정관을 둔다.

- 유아교육 담당 조정관은 3급 이상 수준의 유아교육 전공자로 보하고, 2인 이상의 사무관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유아교육 담당 조정관은 출생이후 취학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또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 유아교육 담당 조정관은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되, 유아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 진흥법, 영·유아 보육법, 아동 복지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유아교육 관련 관계법을 최우선적으로 정비·조정한다.

○ 교육부와 교육 자치단체에 유아교육 전문 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항목과 사후평가 통제 항목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독려한다.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교원 연수원의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은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유아교육 개혁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법적 토대 구축

○ 2005년까지 5세아 100% 취원과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을 국고와 교육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1998년까지 확보되는 GNP 5%의 교육예산 가운데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을 5% 수준으로 배정하여 5세아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1998년 이후에도 정부 교육 예산의 5% 수준을 유아교육 예산으로 할애하여 2005년까지 5세아 100% 취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부금 산정시 유아교육 진흥이 별도 표시되도록 하고, 기준재정 수요판단시 유아교육을 별도 판단하도록 한다.

- 사학 부담율이 특히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 재정을 배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 진흥 특별위원회'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한다.

○ 영아 보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유아 보육을 위한 질 제고를 위하여 보육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한다.

○ 5세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교육 기본법에 반드시 포함한다.

보육정책

보육사업 활성화 시행계획

편집자주 : I 은 본회 회장단이 서울시 아동복지국장 면담시 전해 받은 자료이며, II 는 00구의 본회 소속어린이집에 내려온 공문으로 전문 모두를 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서울시의 보육사업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빨리 구청으로 달려 가십시오.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본회로 문의 바랍니다.

I 민간보육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영아장애아 시설 운영비 지원
 - 3개반 이상 시설로 2세 미만 · 장애아반 1개이상 운영하고 정부의 표준보육단가 이하 수준 수납시설
- 월 60~80만원/반
- 생활보호 대상아동 전액 보육료 전액지원
 - 2세미만 283,000원, 2세 230,000원, 3세이상 141,000원
-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우선융자 추천
- 동일시설 종일반에 두자녀 입소시 동생보육료 50% 지원
 - 월평균 소득이 서울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220만원)

□ 사업효과

- 보육이 어려운 영아(2세이하)와 장애아의 보육장려
- 생활보호대상 아동이 집가까이에 있는 보육시설 이용가능
- 규모가 영세하고 환경이 열악한 민간시설의 보육환경개선

□ 추진일정

- 기 시행중 : 영아장애아시설 운영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아동 보육료 전액지원,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추천
- '97. 1월시행 : 두자녀 보육료 지원

II 보육사업 활성화 시행계획

필요성

- 보육시설의 양적확대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시민들의 보육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보육아동이 저년령화 되어가고 있어 질적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 민간보육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공립보육시설간 기능 재정립이 필요함

활성화 방안

1. 보육시설간 기능 재정립

- 구립시설 - 저소득 요보호아동 대상으로 중점 운영
- 민간시설 - 전업주부 및 고소득 맞벌이가정 자녀위주 운영

□ 실행

-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하여 보육아동확보 경쟁 치열
- 일부 민간시설은 시설이 열악하여 구립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 시설화 경향
- 구립시설에 고소득 맞벌이가정과 전업주부의 자녀가 일부 입소하여 위화감 조성 및 보육시간 파행운영 초래

□ 보육시설 기능재정립을 위한 대책

구분	기능 재정립 방안
공립시설	○ 보육대상은 요보호아동 중심 운영 ○ 구립시설 과다설치 지역은 일부시설을 영아·장애아 시설로 전환
민간시설	○ 보육대상은 전업주부, 고소득 맞벌이가정 자녀로 하고 비용은 보호자부담 원칙 ○ 영아·장애아 시설에 지원확대

2. 구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구립시설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자에게 적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

□ 입소대상아동의 선정강화

○ 제도개선 : 시설장이 입소대상 아동 선정

- 현 행 : 시설장이 입소대상 아동 선정
- 개 선 : 동장이 요보호대상 아동을 엄정선정
- 선정기준

-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등 보육료 면제자
- 2) 장애아동
- 3) 보육료 경감대상자
(월평균소득 3인가족 105만원, 4인 115만원, 5인 125만원이하)
- 4) 편부모 가정, 결손가정의 자녀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
(월소득 220만원 이하)
- 5) 서울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의 취업모(편부포함) 자녀
('95.4/4분기 기준 22만원 수준 - '97년도 기준적용)

※ 구립시설에 위 선정기준으로 충원되지 않은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 일반 취업모자녀에 한하여 가급적 소득순에 따라 정원의 20%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에 의거 입소조치 가능

○ 대상시설 : 정부지원시설

○ 선정방법

- 모집 : '96년 12월중 '97년도 구립어린이집 보육아동 모집계획(어린이집 반별 모집아동수 명기)을 반상회 회보, 동계시판 등을 활용하여 동별로 모집공고(1개월이상 모집기간부여) 및 홍보
- 접수 : 해당시설 접수(입소신청서에 의료보험카드 사본 및 소득 증명서류 첨부) → 시설장이 동사무소에 서류제출 심사의뢰
- 심사 : 동사무소 가정복지담당 서류심사(소득조사) 및 필요시 가정방문하여 보육대상 아동 선정 검토의견서 작성
- 대상자 결정 : 동장이 확정 → 동장이 시설장에게 통보 →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통보
- ※ 결원아동 보충 : 접수대장에 등재된 아동을 선정기준에 의거 시설장이 동사무소에 수시 심사를 요청하여 입소 결정

□ 소득조사

- 서울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의 취업모자녀 확인방법 입소신청서에 첨부된 의료보험카드 사본에 의거 동거가족중 근로소득자를 파악하여 근로소득자 전원의 소득을 합쳐 가구당 월평균 소득산정
(맞벌이 가정은 의료보험카드 2개이상 보유)
- 공무원 : 봉급표상의 기여금기준(월143,570원 이하)
- 5인이상 상시근무 사업장 근무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월평균소득 조회자료에 한하여 소득 인정
-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 : 근무처사업주가 월평균보수확인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노점상, 파출부, 기타 자유영업자 : 지출조사에 의거 수입추정
(지역의료보험조합 소득기준 참조)

※ '97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 참조

○ 시 행 : '97입소대상 아동부터

3.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 0세아, 장애아보육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중 종일반으로 0세아 1개반이상 또는 장애아 1개반이상 운영하는 보육시설(임대건물 제외)
- 교사배치기준 완화 지원
 - 현 행 : 0세아, 장애아 5명당 교사 1명, 자원봉사자 1명(자치구비 지원)
 - 개 선 : 0세아, 장애아 3명당 교사 1명(구비자원봉사자 폐지) 배치
- 지원내용 : 0세아, 장애아 3명당 교사1명 인건비 지원
장애아전담교사 수당 월 5만원 지급(0세아전담 교사 수당 월5만원 기지급)

○지원기준

0세아, 장애아수	보 육 교 사 지 원		
	계	국고보조사업	시.구비지원사업
3~4	1	1	-
5~7	2	1	1
8~10	3	2	1
11~13	4	2	2
14~16	5	3	2
17~19	6	3	3
20~22	7	4	3
23~25	8	4	4

4. 두자녀 보육료 경감대상자 지원기준 개선

○ 제도개선

- 현행 : 소득기준 없이 구립시설에 두자녀보육시 동생보육 50%지원
- 개선 : 서울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이하(220만원)인 자중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는 두자녀가 동일시설에 종일반으로 보육시 동생보육료 경감지원(민간어린이집포함)

○ 지원기준 : 경감아동 지원금액과 동액

('96년 기준, 단위: 천원)

	2세 미만	2 세	3세 이상
일 반 아 동	70	58	36
경 감 아 동	35	29	17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직장, 놀이방제외)중 보육료를 표준보육료 이하 수준으로 수납하는 시설

※ 두자녀보육료 경감자의 본인부담 보육료는 표준 보육료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감한 금액을 보육료를 산정하여 수납

※ 지원대상자는 '96. 12월에 신청을 받아 소득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

- 조사요령 : 구립어린이집 입소대상아동 선정요령 준용
- 신청절차 : 보호자 → 시설장 → 동장

○ 시행시기 : '97. 1월

5.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생활보호대상아동에게 집가까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영아(2세이하)와 장애아의 보육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건실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생활보호대상아동 보육료 차액보전

○ 지원배경 : 생활보호대상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에 입소시 보육료의 60%수준만 지원하고 있어 정부지원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집가까이 있는 개인 시설 이용곤란

○ 지원대상 : 종일제로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놀이방포함) 입소한 생활보호대상 아동등 보육료전액 면제자

○ '96보육료전액면제지(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세 미만 (장애아)	283,000	32,600	125,200	125,200
2 세	230,000	27,200	101,400	101,400
3세 이상	141,000	16,400	62,300	62,300

※ 놀이방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기준 지원

○ 시행시기 : '96. 11부터

□ 영아·장애아 시설운영비 지원

○ 영아나 장애아는 보육이 어렵고 보육료 수입이 적어 민간시설에서는 보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 민간 어린이집 반별 월보육료수입 비교

구 분	2세미만반	2세반	3세이상반
보육료 단가	283,000	230,000	141,000
반당 아동수	5명	7명	20명
보육료 수입	1,405,000	1,610,000	2,820,000

○ 지원대상시설

- 영아(2세이하)나 장애아를 종일제로 3개반이상 운영하는 시설로서 2세미만 반 또는 장애아반을 1개반이상 설치 운영하고,
-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이하 수준으로 수납하는 시설
- 반당 아동수는 2세미만반(장애아반)은 5명, 2세반은 7명을 원칙으로 하고 연령별 반편성후 남은 인원이 반정원의 70%를 초과시 1개반을 추가로 편성가능
- 연령별로 1개반씩 운영시는 반당 최소인원 2세미만반 4명, 2세반 5명, 장애아반 4명이상 보육(현원기준)
- 장애아만으로 반평성이 안될 경우 영아반에 통합하여 보육가능

○ 지원기준

- 2세 영아반 : 반당 월60만원
- 장애아반 · 2세미만 영아반 : 반당 월80만원

* 지원대상시설 기준에 미달시 지원중단

○ 시행시기 : '96. 11월

지상강연

보육교사들의 견해와 주관적 이론(subjektive Theorie)

윤 선 영

(호서대 보육교사교육원 강사, 베를린대 유아복지교육학전공 박사과정)

보육교사들이 직업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인 활동을 설명해 주는 자신들의 견해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내포하는 주관적인 가치관 및 일에 대한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주관적 이론(subjektive Theorie)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학문적인 이론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주관적 이론에 대한 실제의 조사연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서는 독일에서 조사된 보육교사들의 주관적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연구조사 방법에 내재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어떻게 귀결되어지는가? 다음에 위의 질문에 대하여 조사해 보겠다.

1. 주관적 이론의 의미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학문적 이론과 인간의 실제 현실에서 행위를 결정하는 주관적 견해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Laucken, 1974; Heckhausen, 1976; Hierdeis & Hug, 1992). 무엇보다 학문적 이론에서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해진 숫자 안에서(Variablen), 그리고 대상이 가지는 영향력을 실제 현실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다루었다. 전통적 학습이론인 자극과 반응작용 연구가 그 예이다.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위는 그러한 방법으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훨씬 다양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Thommen, 1985). 이러한 이유로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부분에서는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학문과 실제생활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학문과 실제생활의 두 부분이 서로 얹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주관적인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복잡한 삶의 현실을 정

당화 시키는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얻게 된 것이다. 학문적인 이론은 주관적 견해의 일부를 검증함으로써 학문적 연구의 단편성을 밝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학문 발달의 동기와 자극을 받게 된다.

주관적 이론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통한 질적인 조사에 양적인 조사를 보충함으로써 산출된다. 인터뷰는 대답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자유스러운 의견과 입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Wolfram(1996)에 의하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와의 관계는 신뢰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칭적관계

(symmetrische Beziehung) 또는 보충적 관계(komplementäre Beziehung)로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칭적 관계는 조사분야에 대한 능력이나 질에 있어서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보충적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전문가로서 질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관계로서 한쪽은 학문적으로 우세하지만 다른 한쪽의 실제경험에 있어서 유력함을 인정하는 관계이다. 어떤 관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유의할 점은 정확한 조사결과를 산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즉 인터뷰의 주를 이루는 대화의 저해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의 어떤 일이나 단어에 대한 정의내용이 서로 다르게 발전되는 경우이다. 특히 전문가 앞에서 느끼는 조사대상자의 열등감이나 소심함 등은 평가 단계에서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으므로 후자의 관계에서는 조사의 처음단계와 대화의 분위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기록상에 그 방법을 뚜렷하게 명시해 주어야 한다. 주관적 이론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

들을 그 직업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이 표현하는 주관적인 정보를 해석학(Hermeneutik)의 원리에 따라 일상적인 의미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포착된다.

지난 10여년간 독일의 유아기초교육 부문에는 많은 교육 이론들이 발달되었다. 그 이론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고 경험하는 보육교사들의 견해, 즉 주관적 이론은 대부분 참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몇년 전부터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소수의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 독일 보육교사들의 주관적 이론에 대한 조사연구

독일에서 행해진 보육교사들의 주관적 이론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활동의 목적은 어디에 두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문제아들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Schaudt(1984)는 45 내지 60분 동안 19명의 보육교사들과 질적인 조사방법인 인터뷰를 하였다. 그들 중 5명은 정확한 내용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
- 그 이유
- 교사와 문제아와의 감정적 관계
- 그리고 그것에 관계한 교사의 교육적 반응

모든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담당 그룹에 있는 한 명씩의 문제아에게 대하여 질문하였다. 모두 15명의 어린이들의 사례가 평가될 수 있었다. 그들 중 11명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5명이 그것에 더하여 언어와 다른분야의 발달지체를 보여주었으며, 3명은 발달지체와 함께 정서적 장애까지 보여주었다. 단 한 어린이만이 능력부족과 발달지체 현상을 보였다. 어린이들의 연령은 4 1/2에서 7세였으며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들의 비율은 11:4였다.

조사된 내용의 분석은 표기화(Etikettierungsansatz)이론에 근거하였고 그것의 효율성을 Staudt는 연구조사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문제행동의 근원은 오로지 가정에 있고 특히 어머니의 잘못에 있다고 규정하였다(449쪽). 이상행동의 주요 착안점과 정신병리학적인 성의 가정을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문제 어린이의 환경에서 감정이입적으로 공감하려 하지 않았다...(536쪽).

조사대상 교사들의 절반이 문제 아동과의 생활과 그것을 지양하려 하는데 무력감, 좌절감, 과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였다. 두 교사는 교육적 노력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나머지 교사들은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제아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교사들의 교육적 비전문성을 현저하게 나타내었다(549쪽).

또한 문제아의 부모들과의 협력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교사들의 적절하지 못한 사고방식과 행위에 대한 이유를 교사들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숨겨진 교재가 질서원칙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교사가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해 필요한 공감대를 발달시키고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 유아원(Kindergarten)에서는 인위적

인 환경이 형성되어, 아주 중요한 삶의 주요 과정인 죽음, 전쟁, 질병, 성, 어른들의 직업세계는 제외되었다. 그래서 큰 어린이들에게 지루함을 주고 학습 수준이 낮아진다.

-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기도취적 병을 유발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유아원에서 통제된 경험을 연기하듯 반응하게 한다(558쪽). 교사들은 이러한 어린이들을 악질이라 규정하였다.

- 남자어린이들은 유아원에서 남성에 대한 동질감을 느낄 가능성이 없다. 교사들에게는 (교사들 대부분이 여성이다) 전형적인 남자들의 관심과 행동양식에 맞추기 어렵다.

- 교사양성교육이 너무 부족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은 감정이입이나 자기반영(Selbstreflexion)과 같은 개인적 능력의 발달을 저해한다.

- 교사들은 유아원에서 원장, 부모, 설립자들에 의한 통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고립되어 모든것에 대한 불확실한 느낌을 가지며, 교사들의 팀을 이룬 공동반영을 어렵게 한다. 그것은 다시 다른 동료교사들에게 무능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린이 개개인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정하게 한다.

- 구조적인 여건(그룹의 크기, 공간, 교사구성요소)과 교사들이 해내야 할 많은 과제와 기대치는 어린이 개개인의 상황에 적절하게 공감하는 일을 무척 어렵게 한다.

교사들과의 대화는 조사자가 보육교사 사범학교의 교사로서 문제아를 위한 상담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제안은 당연히 모든 교사들이 문제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화의 분위기는 교사에 따라 안심하고 대하는가 하면, 거부적인 반응도 있었으며,

저자와 인터뷰에 응한자 간에 즉, 학문적 견해와 교사들의 주관적 견해간에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Stempel(1985)은 함부르크 유아원들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생활관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31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룹 및 개별인터뷰를 하였다. 교사들은 대부분 문제아들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그들은 대략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뉜다:

(1) 그룹생활을 방해하는 어린이들,
(2) 적절하지 않고 동기가 없이 행동하여 그룹의 규칙에 어긋나는 어린이들, 그리고

(3) 적응이 지나쳐 조용하고 개방적이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다.

교사들에 의하면 가장 문제가 많은 어린이들은 행동양식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룹(2)이라고 했다. 교사들은 그들에게 가장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였다. 그룹생활을 방해하여 비교적 어려운 어린이들은 그룹(1)이라 하고, 그룹(3)에 대하여는 어린이들의 인성발달이 염려된다고 하였다.

문제행동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가정 또는 어린이의 인성부분에 있다고 보았다. 유아원의 부적절한 여건에 의한 영향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

Stempel은 문제어린이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유아원의 상황과 교사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만일 가정적인 문제가 주요근원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도움 또한 부모들과 함께 부모들을 위해 발견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쉽게도 제외되었

다.

Ulich(1989)는 56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자유로운 형태로 대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식형 질문을 통하여 질적인 조사를 하였다:

- (1) 교육이란 무엇인가?
- (2)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3) 오늘날 교육은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오는가?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대략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교육이 어린이를 적응시키고, 인식시키며, 수동성을 길러준다고 표현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개성, 자기발전, 능동성을 길러준다고 표현하였다. 첫번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앞의 첫번째 입장에 가까워, 교육의 인간형성(Forming), 적응, 지도에 대한 이론(58쪽)을 나타내는 현실적인 양상을 재발견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답의 12%정도만이 두번째 입장에 놓여 있었다: 교육한다는 것은 그에 따라 어린이로 하여금 개성과 능력을 만족스럽게 발전시키도록 자극과 인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5%는 보호와 만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57쪽).

질문(2)에 대한 대답인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질문(1)에서와는 달리 적응론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목적은 오히려 두번째 입장에 가까이 놓여 있었으며, 어린이들의 인성발달 촉진을 강조하였다. Ulrich는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점을 교사들의 직업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기를 원하는 것 사이에 깊이 내재하는 모순이라 귀결지었다.

질문(3)에 대한 대답은 75%의 교사들이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을 언급하였고, 그중 41%가 텔레비전의 영향이라 하였다. 교사들 중 1/4은 가정문제(이혼, 맞벌이 부부, 알코올 중독, 폭력)와 혼란스럽게 다양한 교육규범을 입증하였다. 또한 부모의 소비생활이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적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단지 5%의 교사들이 적절하지 못한 유아원의 상황(그룹의 크기와 교사의 부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 환경,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묘사하는 데에는 교사들이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직업생활에서 겪는 무력감은 교육목적과 교육관에 왜 차이점이 생겼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원래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인성발달에 대한 교육목적은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통제와 적응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교사들의 무의식 속에 머물러, 부적절한 영향요인에 대항하는 목적있는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하였다. 많은 교사들이 부모 안에서 교육의 파트너나 공동체를 발견하지 않고, 무절제한 텔레비전 시청,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상황, 부적절한 교육방법 등이 제공하는 문제점들만을 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교사와 어린이와의 좋은 관계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교사의 수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그것은 많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내적 관점에 견주어 볼 때 외부적인 상

황이 교육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지나치게 요구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Hackstein(1989)은 교사들이 어린이들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원인을 추측하고 있는가, 문제아들이 유아원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아들과 그들의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교사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는 약 3100명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노드라인-베스트팔렌의 41 개소 유아원에 근무하는 125명의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설문지와 그룹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문제행동에 대해서 조사 대상 교사들 중 1/3이 의미있는 문제라 하였고, 1/5은 아주 의미있는 문제라 일컬었다(182 쪽). 1/8 정도의 주로 교외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문제의 의미를 적게 측정하였다.

교사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이 이러한 어린이들을 도와주어 나중에 특수학교로 보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어린이 때문에 생기는 그룹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에 시달리고 있었다. 교사들은 문제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관심을 충분히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소홀히 하는 어린이들은 특히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어린이들이었다. 교사들이 겪는 무력감은 종종 변화되기 어려운 문제어린이의 가정상황과 협력할 의사가 적은 부모들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교교육과 재교육이 충분치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문제아가 없는 그룹을 담당하는 경우에만 교사사범학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어린이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주로 텔레비전 시청문제와 함께 부적절한 가정상황과, 중산층 보다 기층가족에서 자주 관찰 되듯이 사회적 계층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단 한명의 교사만은 그 원인을 유아원에 있는 교사의 교육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들었다(197쪽).

교육상담을 위한 전문시설과의 공동협력작업은 조사 대상 유아원의 20%만이 이루어졌다(191쪽).

유아원의 어느 활동과 조직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가에 대하여도 파악되었다. 특히 방해적으로 나타나는 순서로는

- 1) 교실에서의 자유놀이 시간,
- 2) 의자에 빙 둘러 앉아 공동작업을 할 때,
- 3) 교사에 의해 이끌어지는 집중시간,
- 4) 정리시간이었다.

그 원인은 오로지 어린이들의 행동에 있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오전시간의 집중력 부족이 그것이다.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의견은 주로 문제어린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일일계획에 변화를 주는 해결책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의견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교사들의 평가는 14%가 좋다 또는 아주 좋다, 5.6%는 부족하다 또는 아주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그 중간에 놓인 80%의 교사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의견이었다.

부모들과의 협력작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룹의 32.8%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

다. 64.8%는 경우에 따라, 2.8%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주요안건은 부모회를 통하여 이야기 되고(52.2%), 부모상담소를 권하는 경우(12.2%)도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교육적 의견일치를 위해 이루어진다(4.7%). 그 효과에 대해서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6.7%가 좋다/아주 좋다, 11.1%는 적다/아주적다라고 대답했다. 72.2%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전문적인 도움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났다: 54%의 교사들이 전문가에 의한 도움을 원했고, 43.6%는 문제점에만 치중될 것을 염려했으며, 2.4%는 그러한 도움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전문가가 어린이를 직접 관찰하고 교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81%의 교사들이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입장이었다. 17.6%는 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했다.

1990년 전문교육잡지 오늘의 유아원에서는 6840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오늘의 유아원 편집, 1990). 결과는 교사에 대한 요구와 부담이 지난 몇년간 다음의 원인으로 인해 현저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 문제어린이의 증가 (89%),
- 부모들의 큰 요구 (67%),
- 가정문제 (66%),
- 늘어난 부모와의 상담 (33%)

Krenz(1993)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슬레스비히-홀스타인에 있는 135개소의 유아원 교사들은 어린이들과의 활동(65%) 뿐 아니라, 부모들과의 작업(56%)이 지난 몇년간 절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다.

Gleich(1993)도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에서의 설문조사에서 현직교사들과 전직 교사들이 이러한 견해를 확인했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돌보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Prokop & Hermann(1993)에 의하면 264명의 조사대상 교사들이 특별히 유아원의 생활에서는 어린이들의 공격성 때문에, 교육적인 활동에서는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이를 호소하였다고 한다.

Kahle & Dippelhofer-Stiem(1994)은 니더작센의 127개소 개신교 유아원에 근무하고 있는 471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중요한 교육목적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1) 가족의 결함이나 태만을 지양한다.
- 2) 학교를 준비한다.
- 3) 어린이의 자립심.
- 4) 기독교적인 내용과 가치관의 전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아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협력작업을 들었다. 세명 중 한명의 교사는 부모들과의 문제에서 무력함을 느낀다고 한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담당 그룹의 크기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담이 크면 클수록 교육이나 종교교육적인 목표에 대한 양가지망이 적어지고, 좌절감만 생긴다는 것이다. 지지를 받는 경우는 최우선적으로는 동료교사들로 부터이며 다음은 원장들로 부터 경험한다고 한다.

위의 조사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

1) 독일의 보육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유아원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으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어린이들에게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 교사들은 그러한 어린이들과 적절하게 그룹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교사들은 그러한 문제의 원인은 단지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았다. 유아원의 여건과 교사들의 행위의 영향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영하지도 않았다.

3) 이러한 입장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별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제어린이에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다른 어린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 동시에 교사들은 전통적인 유아원 교육체계를 고집하여, 하루일과를 문제요소를 줄이도록 구성하고 있지 않다.

- 부모가 모든 문제의 주범이라 생각하여 부모들과의 밀접한 협력작업이 많이 기대되어질 법 하나, 교사들이 현장 지원에 대해 원하는 것을 언급한 것을 살펴보면,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4) 지금까지 많은 교사들이 행했던 교육적 활동은 주로 가능하면 문제없는 그룹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어린이의 발달에 대한 염려는 그에 반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문제어린이와의 관계를 의식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의 조사들은 또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보육교사 사범학교교육이 교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며, 교사상담과 보수교육 또한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현실, 부모와의 협력작업, 문제어린이 및 그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유아원과 사회계층에 의한 사회환경의 문제 등 아

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3. 연구방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독일 보육교사들의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을 조사한 예를 몇가지 들었다. 이러한 조사는 교사들의 극히 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방법의 형태와 방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조사결과가 교사들의 관심도에 따라 매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익명으로 하여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대답의 범위가 이미 정해진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물론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으나, 동일한 대상의 서로 다른 경험과 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외된다. 특히 교사 개인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과의 관계는 파악되지 못한다.

Ulich(1989)는 열린 질문을 통하여 교사들이 자유자재로 대답을 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정해진 15분 간이라는 시간은 신뢰감 있고 긴장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여 그들이 마음을 열고 깊이있는 대답을 하도록 이끌어 내기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더구나 글, 말,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되기 쉽다.

Stempel(1985)과 Hackstein(1989)은 교사들과의 대화를 그룹을 지어서 또는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교사들의

대답범위를 규정하는 척도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다. 여기에서의 경우를 좀 더 세분화 했더라면 더욱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조사가 되었을 것이다.

Staudt(1984)의 열린 인터뷰는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상담자로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선입견 없이 충분히 받아들이는 객관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나, 교사들이 가지는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의견을 세분화 하며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 문제어린이들의 상황에 따른 행동을 재 인식하게 하고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사자가 상담자로서 자칫 교사들에 의해 반영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과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 자발적인 견해를 조사하는 데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뷰어(Interviewer)가 상담자로서 또 밝혀지지 않은(숨겨진)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행해지는 조사는, 조사자로서만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결과와 매우 다른점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조사들은 보육교사들의 주관적 이론을 포착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교사들의 주관적 이론의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유아교육을 위한 교재, 교구,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어려움을 낳게 하는지, 교사교육과 보수교육은 그것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도적인 측면과 보육교사의 처우면과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교사들의 전문성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며,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

가, 또한 그것들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의 연구는 주관적 이론의 조사로서만 가능해 진다. 하물며 보육제도의 역사가 짧고 정책이 나날이 바뀌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바르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위치는 문제를 경험하는 가장 최전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보육시설에 대한 복지적, 교육학적, 정책적, 사회적 방향은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체를 잘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부터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경험과 견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주관적 이론조사방법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이론과 실체를 잇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론

보육교사들의 주관적 이론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자기반영(Selbstreflexion)이라는 요소가 바로 주관적인 견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 전제조건이자 방법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자와 조사자가 일치되어야 하며, 조사자와 대상자와의 관계는 대상자가 전문인으로서 인정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욕구와 관심에 대하여 자신있게 분석할 줄 알아야, 유아의 개별적인 욕구와 관심을 중요시 하는 유아중심적 교육 또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연구자가 많은 조사대상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많은 시간과 규칙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 위와 같은 노력을 절감하고 질적인 인터뷰를 보충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연구일기(경험록) 작성과 발표가 사용될 수 있다.

- 그러나 교사들이 그것을 위해 자원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경험에 대하여 토론할 특별한 제도적 기회가 거의 없다. 이를 위해 현재 설립되어 있는 교사보수교육시설 뿐 만 아니라 교사상담소를 운영하거나 각종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들이 자기반영(Selbstreflexion)과 자기평가(Selbstevaluation)를 하는 방법에 익숙치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한 연구자와 현직 교사들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기 쉽다. 현재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슈퍼비전(Supervision)은 교사들의 자기반영능력을 길러주고 재교육을 위해서도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슈퍼비전과 같은 공동작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와는 달리 학령 이전의 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자칫 교사들의 사적인 시각에 제한되기 쉽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제가 공동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교사들의 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도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비참여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 또한 주관적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인]

한해를 마무리하며

사진으로 보는 지탁연의 1996년

편집부 위임



'96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

올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겨울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 수련회(총회)를 통해 교사조직으로의 상을 내오기 위한 96년을 실험적 모색기간으로 하고 소모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신입임원단을 선출하였는데 회장으로는 남미영(구로), 부회장으로는 위양자(군산), 임남희(안산) 두분이 수고하시게 되었다.

제 6회 새날을 열어요 어린이날 연대행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91년부터 해마다 벌어왔던 어린이날 행사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가 올해는 서울교대, 양천공원, 노원 마들 근린공원, 세 곳에서 분산개최 되었다. 본회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한겨레 문화센터 등이 주최가 되어 알찬 행사를 진행하였다.



일본 보육교사 본국에서 연수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한일 보육교사 연수'에 일본 보육소의 보육교사 4명이 6월 2일부터 15일까지 본회 어린이집에서 연수를 하였다. 일본보육교사가 본회 어린이집에서 연수한 것은 공식적으로 올해가 처음으로 연수기간 중 한일 보육관 토론회, 자모회의·교사회의 참석, 보육유형별 어린이집 방문 등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남양양 회장, 임남호 보육장 일본 보육대회 참석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회장, 부회장이 일본 자치노(공무원 노조)의 초청으로 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일본 체류중 보육집회 참석과 여러 보육소를 방문하였으며, 특별히 장애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일본의 복지정책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두 회장, 부회장은 한국의 보육의 현주소를 알리고 한일보육교류를 더욱 다지는 데 이바지하였다.



정희연 전부회장이 10개월동안 영국의 Women's Council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 현장학습을 마치고 7월에 귀국하였다. 귀국후 11월에 보고회를 가져 영국에서의 보고 느낀점을 본회 회원들에게 전하였고 정희연 전부회장은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선임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실시

교육부 주최로 11월9일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을 장충동사무소에서 보육교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성교육은 정부(제2) 장관실의 생명존중화산을 위한 프로젝트의 지원이 있었고 3개월전부터 준비팀이 구성되어 충실한 준비를 한 덕택에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보육시설의 육종과 질 제고 연

연수장 방문하여 연수 영상 제



본회와 본회 부설 한국정보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현실과 방향'의 행사가 11월9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민간·가정보육시설 개원요령 설명회', '직장보육시설 개원요령 설명회', '보육시설의 성공·실패 운영사례', '방과후 보육에 관한 토론회'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보육에 뜻을 둔 총 200여명이 참가하여 이 시기 보육사업의 현실을 조망하고 보육운동의 이슈와 제언점을 밝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설문조사

『우리네 아이들』의 진단과 과제

편집부

편집자 주 : 지난 9·10월에 배포한 『우리네 아이들』 설문조사는 소식지의 방향설정에 참고 하기
위함이었기에 자세한 percentage는 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며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우리네 아이들』에 대한 진단과 방
향모색을 하기 위한 자문과 전체 회원들
의 객관적인 평가가 『우리네 아이들』
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란 생각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다.

설문조사는 약 200부 배포하였고 그
중 총 38부(정회원: 21명, 자료회원: 17명)라
는 적은 양이 수거되었지만 『우리네 아
이들』을 만드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말

우리네 아이들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네 아이들』을 구독하게 된 배경
은 본회 정회원이기에 당연히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고 그외는 본회 상담등으
로 방문시 신청 하거나 주변의 권유 등
이 많았고 본지의 발행 횟수는 '월1회 그
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지 외 다른 유아교육관련 정보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80%로 우리 정회원
인 경우는 대부분이 2·3종의 다른 정보
지를 구독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유아교육계나 복지계의 이
론이나 관심분야 등의 흐름 파악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시설에서 활용키 위해
단연 많았고 부록으로 제공되는 교육계
획안을 활용하기 위해 다른 정보지를 본
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교육내용을 실
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자료의 필요
성이 대두된 듯 싶고 아마도 교육연구부
의 모 유아지의 교육계획안 집필자로 있

었기에 우리 회원들의 답변이 보다 많았
던 것 같다. 기타로는 아동의 건강·교
육의 바른 관점 파악과 다른 나라 유아프
로그램이나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실
정을 알고 싶고, 재미가 있어서 본다고
한다.

타 정보지와 비교하여 본지가 부족한점
은 유아교육의 실제프로그램과 관련분야
를 총망라한 다양한 내용이 옛 비슷하게
가장 많았고 유아교육관련 정보, 신속성,
유아교육의 이론·철학 등, 내용과 정보의
정확도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타정보지
에 비교하여 본지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는 보육종합잡지를 지향하며 복지 전반
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본지 특성을 가
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가족
적인 친근감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아쉬
운 것은 우리 본지의 가장 약한 고리이
기도 한 유아교육의 실제 프로그램을 담
해준 독자는 한명도 없었다.

본지의 자료회비는 현재대로 1년
25,000원, 6개월 13,000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2배이상
이었다. 아니라고 답변한 자료회비는 1년
30,000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대부분이다.

본회의 참여와 방식은 정회원 1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반면 자료회원들은
8명이 전화상담, 본회소속시설에 자원활
동, 본회의 자료 또는 판매도서 구입, 본
회의 전회원, 본회 교사소모임 활동, 본
회에서 주최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자료회원들이 편안하게 참여를 할 수 있
는 방법 모색이 필요 하겠다.

『우리네 아이들』에 자료회원은 전
혀 참여한 적이 없고 정회원은 본지에
원고 기고물(답변자 중 50%)하는 형태로
참여하였고 답변자 대부분이 기회가 닿
는다면 『우리네 아이들』에 참여 하고
자 한다. 그 참여 형식은 역시 원고기고
가 가장 많았고 편집부원으로 활동, 지역
소식을 알리는 취재원으로 활동, 모니터
요원으로 참가, 기타로 자료회원들의 지
탁연 활동-자원활동, 교사소모임, 행사참
가-의 참여를 희망하는 의견이 소수지
만 다양하게 나왔다.

재미가 있는지요?

본지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읽는 부분은 정회원과 자료회원 각각 관
심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회
원은 교사나 자료회원 등이 쓴 생활이야
기나 어린이집 일화들을 가장 먼저 읽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미와 부담이
없고 실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한다.

자료회원은 보육관련단체의 최근동향
과 국내·외의 아동복지에 대한 입장, 이
론등의 추세의 궁금증과 지방의 정보부
족을 극복키위해 그리고 보육단체에서
내는 소식지이기에 당연히 보육소식이나
정보를 먼저 읽는다는 답변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읽는 부분은
현장에서의 교육적 가치관 형성과 교사
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다른 각도로 보고

소개하는 경우때문에 교육철학과 이론에 관련한 내용을 읽는다고 한다.

건강정보, 그림책 또는 노래등 실제 적용가는 프로그램, 복지를 다룬 내용도 먼저 읽는다는 답변이 골고루 있었고 기타로 목차(짜임새)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 가는 회원도 5명이다. 자신의 특별한 관심도에 따라 먼저 읽는 부분이 다양하게 나온 듯하다.

본지의 어떤부분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보육시설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실제 프로그램이 앞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교사들의 처우 문제나 활동으로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네 아이들」이 종합잡지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아 이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 소식과 정보등이 보강되어 전반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소식지가 보기에 좋은지요?

본지의 겉표지는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2명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표지를 칼라로의 전환과 측면에 제목·월호를 기재해서 눈에 잘 띄고 책꽂이에 꽂을 경우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사진처리를 깨끗이 해서 밝고 산뜻한 표지와, 인물사진 뿐만아니라 아동이 그린 그림 · 놀이를 하는 모습, 도안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표지용모를 제안

한 회원들도 있다. 반대로 지탁연 나뭇의 특색이 있어서 좋다와 잡지 홍수시대에 소박한 흑백표지가 오히려 더 신선감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본지의 본문(편집 모양새)은 보기에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대체로 괜찮다고 한 반면 편집이 너무 단순하다는 의견 또한 나와서 보기에는 좋지만 오타가 많은 부분과 편집기술 측면에서는 부족하란 점을 지적하였다.

본지를 구독하신 이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는 단연 건강이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되고 기존의 양의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신선하고 교사의 의식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림책소개와 각지역교사 활동의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난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외 대다수가 보육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매 시기시기 마다 지탁연의 입장을 제안하는 것, 보육관련 소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점, 여러나라 보육형태를 소개하는 난,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와 이해, 유아교육의 철학과 관련된 정보, 수준높은 프로그램으로 전문성확보 등등이 도움이 된다고 옹하였다.

본지가 도착되지 않거나 파본이 발송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4명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이유는 집을 이전하였는데 이전한 집으로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지방인 관계로 전달이 늦게 되어 관심있는 행사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 제본상태가 불량인 경우라 하여 자료회원관리의 치밀성과 정보의 신속성등은 편집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본지의 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답변하였고 분량은 현재 70쪽이 적절(67%)하다는 의견과 내용보강으로 두꺼워져야 한다(33%)는 의견이 있다. 두꺼워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80, 90, 100, 150, 250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했는데 현재 편집부의 역량과 지탁연의 재정상태, 내용수급 등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네 아이들!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독기간이 마감되면 재구독을 신청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구독을 하겠다고 한다.

자료회원으로서 본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본회의 각종 자료, 도서의 할인판매와 본회의 각종 교육강좌 또는 행사 안내 및 회비 할인 순으로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졌고 자료회원 3명이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들었다.

본회에서 구입또는 열람을 하였던 자료나 상담내용은 복지·탁아 관련자료가 가장 많았고, 지탁연 교육자료나 그림책 등 교사관련 자료를 이용한 듯하다.

본지에서 다루거나 소개했으면 하는

내용과 본회에 대한 바램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참으로 많고도 다양하고 참고가 될만한 의견들이 나왔다. 우선 정회원과 자료회원의 뚜렷한 차이점은 정회원은 현장의 소리와 교육내용을 다루길 희망했고, 자료회원은 정책과 컬럼·에세이를 희망했다.

기타로 본회가 종종 사용하고 있거나 고집하고 있는 탁아라는 용어를 보육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한 회원의 의견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 * 야외학습장소 목록을 만들었으면,
- * 아동뿐만이 아닌 교사·성인이 구독할만한 책소개를 했으면,
- * 우리 선조들의 유아교육은 어떠했는지,
- * 보육교사 이동 및 취업정보는 어떠냐는 의견,
- * 정보가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 등등이 나왔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소식지는 보육교사의 단결의 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리네 아이들은 진정한 보육교사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감을 더하게 해준 시사적인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지탁연 식구들에게 힘찬격려와 우리네 아이들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애정어린 격려를 잊지 않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설문조사는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뿌린 양에 비해 많지 않은 수가 수거되었지만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적인 면에서는 회원들의 성실한 태도를 읽을 수 있었고 「우리네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네 아이들」편집부의 매년 평가에서 나온 부분이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편집부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측면에서 이번 설문지 작업은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해본다.

설문지를 분석하며 「우리네 아이들」은 이제 명실공한 보육교사의 대중종합매체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대로의 전문기획팀의 구성, 소식지에 대한 재원 확대, 전문 집필진단 구성, 정보의 다양화와 신속성을 위한 편집부의 보강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보육교사가 대상이라 했을때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네 아이들」이 보육교사의 단결의 장이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며 「우리네 아이들」편집부는 회원들에게 재미있고 진정한 도움이 되는 소식지를 만들것을 약속한다. 전역인

◆ 설문 응답자의 요구 내용 분석 ◆

정회원	현장의 소리와 교육내용 · 지택연 지역위원회 소식 보강 · 지역사업 모범사례 소개 · 현장탐방기와 창의적인 현장개발 프로그램 · 영아관련 정보와 실제 프로그램 · 교육 철학, 이론 강화
자료회원	정책과 컬럼 ·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 · 보육교사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컬럼, 에세이 ·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글 · 구체적인 행사 소개
공동	세계여러나라 보육정책과 실제에 관한 내용 소개

소모임

'96 한해 소모임을 정리하며

최 순옥(본회 교육부장)

지난 95년, 본회는 보육에 있어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면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였다. 교사의 질이야말로 보육의 질에 가장 본질을 이룬다는 각성으로 교사의 자질 향상과 더불어 현장 교육의 질적 전환을 모색코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해나가자는 취지로 소모임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중앙 소모임과 지역 소모임을 꾸렸다. 소모임을 통해 회원들이 이루고자 했던 바는 첫째, 교육에 있어서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교사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해내는 것이었고 둘째, 그 내용을 현장교육에 적용,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시도와 평가의 과정을 통해 현장교육의 질을 차츰 높여내고자 하였으며, 셋째 소모임의 성과를 축적하여 많은 동료 교사들과 나누려는 것이었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져 새로운 활동의 무한한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으며 소모임 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교사 자신이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소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도 어언 2년이 흘렀다. 이 시점에서 그간 소모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96년도 소모임 활동 보고를 바탕으로 소모임의 현주소를 밝히고 앞으로 발전적인 전망을 갖고자 한다.

(이후 내용은 소모임 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으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소모임을 보다 밀도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련회 자리를 기약하며 부족하더라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소모임 현황과 활동

95년도 들어서 목적의식적으로 많은 소모임을 결성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소모임은 중앙에 1개, 지역에 12개이다.

중앙 소모임은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갖춰 이후 지역소모임을 주도하는 주체를 길러내고 동일한 내용의 소모임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키로 하였으나 거리상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각 집의 성원들이 어린이집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 지속한 뒤 해체되었다. 그러나 해체된 소모임도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소모임 활동 현황 분석 ■

		소모임 명칭	모임시작일/모임/해체	인원
중앙 소모임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95. 3. 17-현재	4
		밖으로 나가 놀자	95. 3. 24.-해체	
		영아 탁아 소모임	95. 5.-해체	
		국악 소모임	95. 3. 29.-해체	
지역 소모임	구로	땅따먹기	95. 2.-현재	정회원4 매회 추가 동참
		영아 소모임	96. 6.-현재	10
	인천	국악 소모임	-현재	1기-9 2기-5
		등산 모임	94. 4.-현재	7
		그림책 소모임	-현재	5
		우리교육 소모임	-현재	5
		노래 율동 소모임	해체	
		미술 소모임	해체	
	안산	우리교육정리 소모임	96. 9.-현재	7
	수원	교육이론학습 소모임	96. 4.-활동 중지	8
	전주	혼소리 분과	95. 5. 24-현재	6
		이야기 나라 분과	95. 5.-현재	3
	광주	놀이사랑 분과	95. 5. 22.-현재	4
		그림책나라 소모임	96. 4. 16.-현재	4
		통일 이야기 소모임	-현재	?
	부산	국악 소모임	95. 3.-해체	
		주안 소모임	95. 2. 21.-해체	
		색종이 소모임	95. 3.-해체	

'밖으로 나가 놀자' 소모임이 시작되고 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바깥놀이 활동이 정착되고 다양한 야외수업이 시도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연을 통한 감각교육의 필요성을 전회원들에게 공감케하는 데 이 모임의 역할이 지대했다.

'영아탁아'모임도 소모임 자체는 해체는 되었으나, 영아보육의 경우 각종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던 차에 한문건강교육원과 연결이 되면서 기존의 소모임 성원이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소식지에 1년간 그 내용이 게재되면서 영아 뿐만 아니라 유아의 건강, 나아가 어린이의 몸과 마음 이해를 돕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영아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으

로부터 출발했던 만큼 이후 지역소모임이 (구로) 다시 구성되었다. 현재 두 영아전담 시설 교사들이 자체학습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같이 고민을 해결해가고 있다.

국악소모임 또한 국악교육의 붐을 일으켰을 뿐더러 각 지역의 소모임 결성에 자극을 주었다. 중앙 국악 소모임장은 모임 해체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고 현장에서 국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소식지를 통해 국악교육의 실례를 보여주기도 했고 현장에 국악교육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국악소모임의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림책 소모임인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은 그 역

할이 막중하다. 그간 소식지를 통해 꾸준히 좋은 그림책 소개를 해왔던 중앙그림책 분과에서는 그림책에 대한 학습과 비평을 하면서 그림책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한편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그 반응을 기록, 평가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때 모임이 해체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성원도 들어오고, 관심이 옛이야기 쪽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번 겨울 수련회엔 '어린이집에서 옛이야기를 들려준다'란 제하에, 짧은 강연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옛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반응을 녹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엔 그동안 축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를 위한 그림책 기획강좌를 마련할 계획도 있다.

그림책 소모임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역에 가장 많이 확산되고 활동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그림책 자체가 워낙 통합교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여러가지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어서인지, 그림책소모임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뿐더러 그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주지역 그림책소모임인 '이야기나라' 분과에선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미술을 함께 학습하고 있다. 활동계획도 야심차서 주제에 따른 그림책 분류목록을 만들 예정이며 아이와 만들어본 그림책 사례정리작업, 연령에 따른 그림책에 대한 반응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광주 '그림책 나라'에서도 다른 교사들에게 모임의 성과를 같이 나누기 위해 강연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즉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골라 나름대로 비평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흥미로와 보인다.

국악소모임도 비교적 확산이 잘 된 편이어서 인천의 국악소모임이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 2기 회원까지 모집한 상태이고 부

산에서도 국악소모임이 다시 구성될 것 같다. 전주의 '놀이사랑' 분과도 국악에 관한 학습을 함께 하고 있는데 놀이와 노래, 춤과 가락이 함께 어우러져 발달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의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교사여름연수 때 보여준 교사들의 기량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여, 우리가락과 전래동요를 몸으로 익히고 배운 아이들이 흥에 겨운 노래가락을 멋들어지게 불러 제기는 모습을 볼 때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소모임의 종류를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우리교육을 이론적, 철학적으로 정리하는 모임, 그림책이나 국악, 전래놀이 등을 아이들 교육에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그 분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 적용, 평가하는 모임, 기존의 영역 내지 활동에 다양하고 좋은 내용을 공급하기 위한 모임이 있다. 이외에 교사들이 심신의 활력을 얻기 위한 등반, 여행모임이 있는데 두번째로 분류될 수 있는 소모임이 가장 많고 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로 분류된 소모임이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우리의 현장교육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아쉬움이 있다면 교사들의 교육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이러한 소모임에서 교육철학, 교육이론이나, 교사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토론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92년 아동관토론회가 다분히 '교육은 아이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전제로 부터 출발하여 전달해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토론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오히려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아동관에 대한 재점검, 교사들의 의식과 일정정도 동떨어져 진행되었던 현장교육의 재점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네번째로 분류된 소모임은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만큼 교사들의 심신이 지치지 쉬운 생활이다 보니 때로 일상에서 벗어나 부담없이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듯하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 젖어들고 싶어, 함께 우리 산과 국토의 곳곳을 찾아다니고 자연 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돌아오는 교사들! 다른 교사들이 유난히 이 소모임에 많이 기웃거린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근성이 어디 가랴!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까지 자연물을 돌아올 때 마다 가지고 돌아오는 이 소모임의 교사들이여! 언젠가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필적할 만한 '보육교사들의 답사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꼭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세번째로 분류된 소모임은 현재까지는 그 자체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에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외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장기교육을 받고 있어 이 성원들이 앞으로 새롭게 소모임을 건설하는 주체가 되어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2. 소모임에 대한 제안

모임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원 가운데 예전부터 그 소모임의 고유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어느정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있는 경우, 또 소모임 성원 각자가 모임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모임내용 생산과 보급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경우 원활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모임장이 혼자서 과중한 부담감을 안고 있으면 모임장은 모임장 대로 힘들고 다른 성원들은 성원들 대로 기대에 비해 모임에서 얻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임원구성(모임장, 총무, 서기)외에 성원 각자가 모임의 부서장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인천지역 소모임이 단연 돋보인다. 등산모임의 경우 산행정보부(등반할 산에 대한 정보나 경유할 수 있는 유적지, 유명한 음식점을 알아본다), 교육부(산에서 나는 자연물에 대해 채집하거나 사진으로 남겨서 어린이집 교육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공유한다), 홍보부(소모임 소식을 전하는데 등산모임의 편집부원으로 활동하며 '돌꽃 산악회'를 아름답게 홍보한다), 라는 부서를 두고 있고 풍물 소모임은 장구 제주(갯돈을 건어 회원들이 개인 장구를 마련하게 함), 교육부장(전래동요 및 현장 활동 등을 정리 보급한다), 홍보부장(현안에 따른 홍보를 담당한다)을 두고 있다. 다른 지역의 소모임도 이 점은 꼭 따라 배웠으면 한다.

소모임간의 교류와 다른 회원들에게 소모임의 성과를 보급하는 활동이 아직은 부족하다. 내적인 축적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면도 있지만 같은 종류의 소모임끼리는 서로의 활동을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자극과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겠다. 소모임마다 홍보부를 두어 소식지 소모임란에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소모임 성과의 확산은 1차적으로 우리회원들에게 소모임의 성과를 나누고 발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이후 더 많은 교사들을 위한 기획강좌나 발표, 활동자료집 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민]

성교육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강좌

교육부

지난 11월 9일 본회 주최의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강좌'가 좋은 호응을 받은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다. 이번 강좌는 '어린이집에서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현장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직접 실시한 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부에 '나의 성의식 돌아보기' 시간에는 현재 교사자신의 성의식 뿐만 아니라 어린시절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돌아보고 토론하였는데 교사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또 재미있게 참여하였다. 2부 교사들의 발표시간에는 같은 교사들이 직접 실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교사들의 호응이 더 높았으며 특히 프로젝트 접근법을 시도한 사례발표의 경우, 몇개월간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을 뿐더러 아이들의 자발성이라든지, 서로 의논해서 함께 작업하는 의의함 등등의 변화가 주는 감동이

컸습니다. 성교육이 단지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



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음을 배워나가는 것이라 할 때,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이들의 반응에 관심을 보이며,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교사의 태도가 온연 중에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를 끌어낸 것이라 하겠다. 그날 전시된 교육활동사진 속의 흥미로와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유난히 생생해 보였다. 그 외에도 국내외 성교육그림책, 성교육비디오도 전시되어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성교육잡관기

성교육을 다녀와서

지 정희(부산 아기자람터 교사)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떠서 부산을 떠났다.

새벽부터 만난 교사들은 소풍을 떠나는 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거! 새벽부터 일한 사람 좀 생각해서 조용히 좀 하십시오.” 라는 주위의 원성과 함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면서 서울에 도착했다.

첫시간에 우리를 맞아 주신분은 김희은 선생님이였다. 절절한 말씀씨와 유머감각 때문에 「교사의 성의식에 대한 자기성찰」이라는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여행에서 오는 피로감도 말끔히 사라졌다. 평소에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도 없었고, 공부도 해보지 않았던 터라 성교육 질문지를 받았을 때는 무척 당혹스러웠고, 많은 부분에 답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후 그룹 토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조는 토의 내용을 어린시절 성과 관련된 경험들과 느낌을, 그리고 사춘기 시절 겪었던 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로 결정했다.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경험이 없던 나는 쑥스럽기도 하고 다른 교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줄까? 라는 의구심도 가졌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자, 시간이 짧아서 다음 문항들을 토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만큼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어린시절 겪었던 성적경험들은 수치스럽고 불쾌했던 기억들로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사춘기때도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접하지 못하고 친구들이나 잡지등을 통해 접했기 때문에 은폐된 성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



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바로 이어진 「어린이집에서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씩씩이놀이방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나타나는 문제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형식으로 성교육 사례를 만들어서 발표했다.

다음은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기존 방식처럼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방법으로, 톤톤이어린이집에서는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방식으로 접근한 사례를 발표했다.

교사가 올바른 성의식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한다면 아이들도 아주 흥미있어 하고, 교사 자신도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었다.

일상 생활가운데 “아빠다리 했나요?”

“예쁘게 그림을 그리세요!” “남자가 그 까짓거 가지고 울고 그래?” 등등 그릇된 성개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말들을 무심결에 뱉어 내고 있는 나 자신도 발견하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언어사용을 해야겠다는 결심도 했다.

프로젝트접근법에 의한 사례를 들 때에는 평소에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웬지 무척 어려울 것 같아서 실천해 보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 교사들이 함께 공부하고, 과감하게 실천해 본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부산에 내려와 자람터 교사들과 함께 교육내용을 나누면서 우리들도 작은 것부터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런 교육적 사례들도 함께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아기자람터에서 나올 좋은 교육적사례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싶다. [서탁인]

어린이집 식단

겨울철 식단

오 경민 (영양사)

영아 이유식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당근죽	현살생선죽	크림스프	사과초침	닭죽	쇠고기무우국 과 밥
2주	우동죽	빵죽	장국죽	옥수와 삶은달걀 노른자	콩가루 넣은 콩죽	두부찜
3주	닭곰탕과 밥	감자샐러드	연두부와 옥수	으깬 고추마와 우유	시금치죽	치즈죽
4주	미역죽	갯죽	멸치죽	감자스프	다진채소 넣은 쇠고기죽	소면과 옥수

◎ 꿀경단 : (재료: 찹쌀경단, 검은깨, 물엿, 설탕)

찹쌀경단은 끓는 물에 삶는다. 익으면 건져낸 다음 찬물에 식혀 소쿠리에 건져 놓는다. 물엿과 설탕을 함께 끓여 식힌다.

경단에 꿀물 입히고 검은깨 뿌린다.

◎ 절편 밥조림 : (재료: 절편, 간밤, 대추, 검은깨, 간장, 물엿, 황설탕, 참기름)

절편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참기름에 버무린다. 밥을 삶아서 적당한 크기로 썬다. 물엿과 황설탕을 끓인다. 대추를 채로 썰고, 끓인 물엿에 절편, 밥을 넣어 조리후 깨, 간, 대추와 함께 버무려 낸다.

◎ 사과 요구르트 화채 : (재료: 사과, 키위, 파인애플, 붉은색 과일, 요구르트)

사과는 껍질을 깎아 작둑썰이 넣고 계절에 맞는 과일 선택하여 사과와 같은 모양으로 썰고 요구르트와 섞어준다.

3~5세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 주	오전 간식	우유	코코아	두유	우유	두유	원죽
	점심	쌀밥 김치된장국 야채달걀말이 탕평채 김치	보리밥 비지찌개 닭감자조림 파래오이생채 김치	밥 쇠고기미역국 멸치볶음 호박나물 김치	수수밥 김치콩나물국 떡산적 콩조림 김치	보리밥 감자국 동태전 우영조림 김치	떡국 김치
	오후 간식	김치전	떡볶이	전감자구이	햄빵 사과요구르트 화채	군만두	탕수육
2 주	오전 간식	크림스프	우유	코코아	두유	우유	우유
	점심	차조밥 두부된장국 돼지고기장조림 무나물 김치	밥 동태찌개 두부전 잡채 김치	보리밥 청국장 오징어불고기 느타리버섯무침 김치	밥 팽이버섯국 고등어무조림 콩나물무침 김치	콩밥 육개장 배추리얼장 조림 무우초무침 김치	김치볶음밥 어묵국 단무지무침 김치
	오후 간식	꼬마 김밥	꿀경단	전고구마	콘플레이크와 우유	전빵	떡꼬치
3 주	오전 간식	두유	우유	원죽	두유	코코아	우유
	점심	보리밥 콩나물국 현살생선튀김 김구이 김치	밥 쇠고기무우국 달걀찜 미역자반튀김 김치	현미밥 복어달걀국 돈육야채볶음 도라지무침 김치	보리밥 순두부찌개 어묵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밥 홍합미역국 달걀 갯잎조림 김치	짜장밥 단무지 김치
	오후 간식	떡꼬치	전만두	과일샐러드	맛살튀김	부추전	경단 식혜
4 주	오전 간식	크림스프	우유	두유	우유	두유	코코아
	점심	밥 오징어국 돈육감자조림 오이무침 김치	콩밥 당면국 고등어구이 숙주나물 김치	비빔밥 달걀국 김치	보리밥 김치찌개 감자볶음 오징어젓무우 무침 김치	차조밥 미역된장국 달걀장조림 연근튀김 김치	오징어덮밥 유부국 김치
	오후 간식	떡볶이	절편밥조림	과전	식빵튀김	고구마채튀 김	카레라이스 와 우유

학술대회 탐방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주최 '96 추계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위 양자(본회 부회장)

현재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하나는 보육시설의 확대와 내실화라는 국가정책적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주로 보육시설의 확충과 제도적 내실화라는 전자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사실상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우선순위에선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은 아동의 보육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성장배경이라는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기존 보육프로그램이 보육 특성 또는 지역특성에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모형을 제시하고자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와 삼성복지재단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졌는데, 대회

일정과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술대회는 첫째날에 기획주제 발표 및 토론회로 제1주제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제2주제 농·어촌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제3주제 중산층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제4주제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제5주제 통합형(직장+지역보육시설)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을 위해 2·6세 유아를 위한 종합적인 보육프로그램 모형이란 제목으로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5가지 유형별 주제발표를 가진 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회를 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치원 교육비가 70만원까지 일정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의 응답과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어린이집 취학전 아이들에 대한 동등한 혜택부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대한 것은 올해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내년에는 가능하도록 다시 건의하겠다는 답변과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동등한 혜택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이 없으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첫째날은 장애아보육이 통합보육을 지향하듯 모든 보육이 통합적인 시각에서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총평으로 결론을 맺었다.

둘째날은 분과별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제1분과 아동의 역량지각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연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방향과 교수법에 관한 일 연구, 5세 아동의 애착관계와 교사가 측정한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제2분과는 한·일 자녀양육지원 및 보육서비스의 욕구 분석, 프로젝트접근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 발표가 있었다. 제3분과는 6세 이하 아동에 관한 조세지원제도의 불평등성에 관한 연구,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Head Start 분석과 한국어린이집 보육교육을 위한 정책이란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있었다.

둘째날 종합토론회에는 김명숙 가정복지국장과 주제발표자들이 함께 했는데 주로 보육료의 소득공제 혜택여부와 유치원 무상교육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학술 대회 발표 내용에 관한 것보다는 시설운영자들이 평소에 답답했던 문제들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몇가지 지방행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답변과 보육에 관한 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면 힘을 얻어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학술대회의 성과들을 복지부 차원에서 실제 어린이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보육의 질향상을 위한 3개년 계획을 9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보육의 질에 관한 모든 주제를 충분히 토론했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간 보육현실이 양적확충 일변도로 전개되면서 한국의 현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보육내용들을 만들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다소나마 덜 수 있었다.

학계의 이런 노력은 보육의 질을 갖기 위한 시작이다.

이제는 97년까지 양적확충을 끝내고 보건복지부가 잡고 있는 1998-2001년까지 보육의 질향상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예비하기 위해 보육의 질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양적확충을 위해 관심밖에 있던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그네들의 생활과 성장을 국가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어린이집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주제발표자들 대부분이 보육내용을 직접 구성하고 실행하는 주체인 보육교사의 질적인 향상을 중요하게 말한 것처럼 보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육교사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보육관계자들이 시각의 대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다. [서택인]

보육교사 실태조사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광주지역위원회

편집자주 : 이 글은 지난 가을 광주지역위원회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글입니다. 「우리네 아이들」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광주지역위원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1. 들어가며

근대 산업화사회로의 변화속에서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급증 등은 '보육'의 의미를 부모로부터 떨어진 몇몇 방치 아동들의 보호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확대시켰다. 물론 '보육' 자체가 갖는 내적인 문제 제기도 크다. 왜냐하면 영·유아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보장·촉진시킴으로서 미래 사회의 인적 자본을 양성하는 것이 보육의 중요성의 한 축이 되기 때문이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보육사업의 사회적 중요도를 염두에 두고 보육현황 전반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기획하였다. 특히, 실제 보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보육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보육교사의 상황 및 그들이 인식하는 보육사업의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에 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바람직한 보육운동의 전망을 세우고자 한다.

2. 내용 결과 및 분석

전체 21문항으로 개인별 기본적 요건, 근무요건, 교육 및 교사,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등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광주지역 국공립 및 법인, 민간 보육시설 교사 63명에게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교사들은 9명이었고, 민간 보육시설 교사가 나머지 54명이었다. 그러므로 본 설문내용의 결과는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의견이라고 하겠다.

2-1. 개인별 기본적 요건(표1참고)

보육교사들의 연령은 만 20세에서 만 25세 (33명, 52%), 만 26세에서 만 30세 (22명, 34%)의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만 31세에서 만 40세의 연령대에 7명의 응답자(11%)가 있었고, 만 40세 이상의 응답자도 1명 있었다.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고, 비교적 연령분포 폭이 넓은 편이다.

<표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요건

변인		%	변인		%
연령 (만)	21~25	52	근무시설	민간개인	85
	26~30	34		민간법인	11
	31~40	11		국공립	3
	41이상	3		기타	1
자격	유치원교사	31	직위	원장	22
	보육교사1급	15		정교사	69
	보육교사2급	33		보조교사교사	6
	무자격	11		아르바이트	3

자격요건을 보면 유치원 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2급자격이 각각 20명(31%)과 21명(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에 10명, 무자격이 8명이 있었다.(무응답 4명). 현재,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시설내 신규채용의 경우 일정한 교사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설 근무교사들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교사 자격자나 보건 복지부장관이 위탁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을 마친 보육교사 2급자격자이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일정한 자격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다양한 재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2. 근무여건(표2참고)

보육교사들의 근무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 크게 2년 이하의 근무자는 전체대비 31%, 2년이상 근무자는 69%로 나타났다. 월 평균 총소득액(수당포함, 상여금 제외)은 36~45만원과 46~55만원이 각각 30명(48%), 17명(27%)으로 가장 많았다.

연 상여금의 경우 응답자별 차이가 심

했는데 전혀 없다는 응답(38%)에서부터 적은 수였지만 월급여의 400%이상(6%)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가장 많은 응답은 33%의 분포를 보인 월급여의 100%를 받는다고 하였다. 근무시간은 10~12시간 근무가 4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8~10시간, 8시간 이하, 12~14시간 순이었고, 14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자도 3%있었다. 현행영보법상 보육사업지침에 규정된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9시간임을 봤을 때 지침서 규정시간보다 평균적으로 1~3시간 더 근무함을 알 수 있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현재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은 근무시간 및 급여가 전반적으로 장시간에 저임금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보육시설에서 교사의 역할이 아동들과의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정신적 노동뿐 아니라, 아동들의 일상생활(먹는 것, 노는 것, 자는 것 등)까지 늘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육체적 노동, 교구 제작 및 자질구레한 정리정돈 작업 등 매우 다양하고 강도 높은 영역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열악하다. 이렇듯 열악한 처우는 보육교사 직종의 잦은 이직율과 고용상태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커다란 요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표2> 조사대상자의 근무여건

변인		%	변인		%
근무기간	12개월 미만	14	근무시간	8시간 이하	11
	12개월23개월	17		8~10시간	38
	24개월35개월	33		12~14시간	43
	36개월 이상	36		14시간 이상	3
월평균 소득액	25~35만원	8	연 상여금	월급여의 100%~190%	37
	36~45만원	48		월급여의 200%~290%	16
	46~55만원	27		월급여의 290%~390%	
	56~65만원	6		월급여의 400%	9
	65만원이상	11		없다	38

2-3. 교육 및 교사문제에 대한 인식

교육관 결정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70%가 원장과 교사가 논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이론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교사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2%를 보였다.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아동에 대한 애정이라는 응답이 42%,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응답이 32%, 아동의 인성교육 및 정서적 발달이라는 응답이 15%, 교사의 자질이라는 응답이 8%,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3%였다. 이를 통해서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은 보육의 내용을 단순한 아이 돌보기 또는 교육적 지식전달이 아닌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육체적 발달을 총체적으로 도모하고 보장하는 폭넓은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응답(교사자격은 전제로 하고)에서는 교사로서의 경험과 올바른 품성을 첫번째로 꼽아, 교육하는 자로서의 교육경력과 사명감과 성실성에 바탕을 두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앞의 조사 문항에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을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타당한 근무요건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먼저, 비슷하거나 관련된 타직종들과 비교했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월 급여 수준(수당포함, 상여금 제외)에 대한 문항에서는 56~70만원 수준이 54%, 71~85만원 수준이 19%, 41~55만원 수준이 16%, 86~100만원 수준이 6%, 무응답 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된 보육교사들이 실제 받는 급여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격차가 난 바로, 이러한 큰 격차가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임을 알 수 있겠고, 그런만큼 안정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아동의 발달과 심리적 안정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적당하게 생각되는 근무시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43%가 노동법에 따른 8시간 근무라고 답했고 37%는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9시간 근무, 19%는 시설에서의 아동보육시간대라고 답했다. 기타 1%에서는 시간제 근무라는 답변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육교

사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나 재교육 기회습득의 어려움, 교육활동 준비 및 연구시간 마련의 어려움 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교사인력 확보와 다양하고 능률적인 업무 분담 등이 요구되고 이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보육 정책에 있어 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책마련 및 지원책 없이는 어렵다. 그나마 정부지원시설에는 다양한 지원책과 효율적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전체 보육시설 중 20%에 불과하다. 사회속에서 보육이 제 기능을 더 올바르게 실현되고 전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의 영역을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는 80%의 민간시설들도 정책 마련 및 시행에서의 적극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묻는 문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견해가 나왔는데 그 중 우위를 차지하는 내용은 다양한 재교육과 전문강좌-교사들간의 정보교환-연구 또는 자기계발을 위한 유급 휴가-한시설에서의 장기 근무의 순이었다. 이것과 관련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의 내용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 중 43%가 아동교육의 실기습득, 35%는 부모교육 및 상담, 22%는 아동교육의 체계적 이론 습득을 꼽았다. 앞으로 보육정책에서는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좀 더 내실있는 보수교육체제의 강화와 다양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교육과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단계의 보육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59%의 응답자가 아동 및 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라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 교육 및 재교육기회 마련과 보장 24%, 교사처우개선 마련 16%, 보육시설 확충 1%순이었다.

3. 마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사업의 질을 높이고, 보육시설이 제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제 역할 발휘가 중요한 관건이다.

교육의 담당자로서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전문성을 다져나가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보육교사들의 스스로에 대한 전문직업으로서의 인식과 발전노력 지향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 마련과 정책적 보육프로그램 지원, 연구 및 재교육 기회 마련과 보장 정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대상자에 한하는 조사결과이기에 보편성과 신뢰도에 있어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지만, 보육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갈 수 있는 작은 지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렇듯 현장의 소리들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보육교사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고 활동력은, 현단계 우리 보육의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자리잡아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됨을 인식 해야 할 것이다. [서명]

◆ 현장소식 - 마나

자연학습장을 다녀와서

최 은하(인천 햇살어린이집 교사)

파아란 가을하늘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다. 아이들의 바깥나들이도 이제 절정에 달해 오늘은 자연학습장으로 고구마를 캐러 가는 날이다. 갑자기 허둥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찬찬히 출근할 준비를 하고 오늘은 어떤 순간들이 나를 반겨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햇살문을 밀치니 온통 왁자지껄, 시끌시끌거리는 신나고 설레이는 나들이 분위기다. 주방에서는 점심때 먹을 김밥 재료가 길쭉길쭉 얹전혀 누워 있고 딸기 선생님(요리사 선생님)의 김밥싸는 손길도 바빠진다. 아, 먹고싶은 김밥!

자, 드디어 출발! 뱅뱅거리는 차들과 인사하며 자연학습장에 도착하니 아이들도 해방감을 느끼는지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빠르게 뛰어다닌다. 애고, 귀여운 것들. 어느새 나도 어릴적 조그만 추억을 더듬으며 흙을 밟아보는데 "선생님! 이거 이쁘지요?"하며 내미는 "응, 이거 어디서 났니?"한다. (아이고 징그러워)

선생님들도 답답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다 바깥으로 나오니 얼굴이 더욱 예뻐보인다.(하마, 시집가야지..)

이곳은 민보련 부평구 어린이집 자연학습장으로 우리 땅(?)은 열평정도 된다. 이소중한 땅에는 칠면조, 닭, 토끼, 개들이 있어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즐거워 한다. 또 들판에 호드려지게 피어 있는 들꽃속에서 아이들도 들꽃을 닮아가는 듯 마냥 씩씩하고 환하게 보인다.

참, 사설이 너무 길었네. 오늘의 주요 행사를 잊으면 안되지. 나도 모르게 자연속에 폭 빠지다 보니, 찌찌..

오늘은 아이들이 직접 씨 뿌린 고구마가 얼마나 자랐나 확인 하는 날, 아이들은 손에 손에 호미, 막대기 등을 들고 지금부터 땅파기 시작! "우와! 나온다. 나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귀여운 꼬마 고구마부터 언니 고구마까지 부지런히 캐다보니 아이들과 흙은 온전히 한 몸이 되고

만다. 너무 좋다.

땅속에 파묻혀 있던 고구마들이 그 이쁜 자태를 드러 낼때마다, 아이들은 자지러지며 좋아라 한다. 문득,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된다. 친구들과 만나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 컴퓨터 오락에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는 아이, "심심해" 소리를 끊임없이 하며 무료해하는 아이들이 흙 냄새를 잃어버리까 봐 걱정이다.

지난 6월 일본선생님들이 오셔서 아프게 꼬집은 한마디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는데, "한국 아이들은 흙을 못 밟고 산다. 아이들이 땅을 밟으며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라는 말. 흙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놀이와 친구를 되찾아 주고 싶다.

이러한 생각에 빠져 들고 있을 쯤 아이들이 뿌리고 아이들이 수확한 소중한 고구마를 두팔 가득 한 아름 안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캔 고구마들을 서로 자랑하느라고 야단이였다.

햇살로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농부들이 넉넉하고 풍성한 표정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온 아이들의 옷은 흙투성이였지만 발갛게 상기된 얼굴은 자부심에 가득차 있었다. 아이들이 서로 가져온 고구마를 재어본다. 혹 무게를 겨누어 본다 하면서도 고구마를 찌 달라, 맛탕을 만들어 달라는 등 주문도 가지가지였다. 하루종일 신나게 놀아서인지 아이들은 하나 둘 단잠에 빠지고 어느새 아이들이 캐온 고구마는 맛있는 고구마 튀김이 되어 아이들이 캐기만 기다리고 있었다.(고구마 튀김 드시러 오세요..)

우리 아이들도 이 고소한 고구마 튀김처럼 고소하게 살았으면 한다. 우리네 삶의 터전인 흙과 더불어... 서명인

새 책 소개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E.Q를 높여주는 육아제안 20-

오숙희 추천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지음
육아 · 여성 실용 / 국판 / 200면 / 값 5,500원

‘우리 아이는 놀이방에 있는 동안 무얼 하며 지낼까?’

지파연에서는 놀이방,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모두 여섯마당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아이들 세계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아이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만3-6세 아이들의 E.Q(감성지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드러내보여, 전에는 그냥 ‘아이니까’하고 스쳐 지나갔던 많은 아이들의 말과 몸짓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하고 그 깊이만큼 성숙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부모들과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하거나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분, 혹은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식 - 들

광주지역위원회, 보육학교를 마치고

김 영금(광주, 가람놀이방 교사)

지탁연 광주지역위원회의 식구들은 20여 명 정도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5년전 광탁위 결성때의 결의와 94년 부터 결합한 다양한 시설교사들이 힘이 모여 96년내내 광주지역 보육운동을 선도하는 교사조직으로서의 전망을 굳게 굳게 다져왔었다.

그러다보니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및 재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이 가져졌고 더불어 그 관심들을 우리들만이 아닌 주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랬다. 그 바람을 모아 광탁위 평교사분과에서는 "새싹가꾸는 희망공동체 제1기 아이사랑 보육학교"를 기획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인 "보육"을 모두가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장, 교사조직에 대한 선전 및 활동을 대중화하는 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재교육의 장, 이라는 목표를 갖고 9월부터 한달간의 준비에 들어갔다.

10월31일을 시작으로 해서 총 4강을 2주에 걸쳐 했었다.

수강생은 지역의 보육교사, 아이를 키우는 부모, 양성훈련원생 등으로 구성되었고 54명 접수에 49명이 수료했다.

내용은 '1강 함께 크는 우리 아이들(공동체 보육에 대하여), 2강 생활속의 우리 가락(유아국악교육에 대하여), 3강 내 마



음을 읽어 주세요(유아 놀이치료), 4강 아이와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정희연님, 임수정님, 노명희님, 김중철님이 열성으로 강의를 맡아 주셨다. 첫날 입학식 때 격려차 오신 지탁연의 임남희 부회장의 "광주지역에서 보육교사라면 이 보육학교를 거쳐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

큼 열심히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격려는 수강생 모두에게 사뭇 긴장과 열의를 갖게 했다.

다소 원론적이긴 했지만 우리가 보육학교를 여는 중요한 목적중 하나를 담고 있는 1강은 정희연 선생님의 얘기로 다양히 접할 수 있었고, 소고를 가지고 실기를 접했던 2강 유아국악교육은 임수정 선생님과 수강생 전원이 어찌나 신명나게 뛰었던지, 우리 강의실 아래층에서 강의 사절단(?)까지 방문했었다. 3강 유아놀이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주제였다. 놀이치료에 대해서는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매스컴이나 관련 서적을 통해 들어보면서 알고 싶어하는 분야였다. 반면 우리지역에서는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적어 이번 보육학교에 마련된 것이다. 강의시간 내내 진지한 질문과 여러가지 현장사례들이 활발히 오고 갔다.

특히 어머니 수강생들의 자녀에 대한 문제, 사례들을 많이 문의하셨는데 그 사례들을 놀이치료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해결 단계를 함께 짜나가는 과정은 같은 입장의 어머니들에게나 또 그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보육교사들에게나 생생한 사례가 되었다.

4강 아이와 그림책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김중철선생님의 명강이셨는데, 말을 듣는 재미, 글을 읽는 재미, 옛 이야기의 전통, 그림책의 글 맛, 그림책의 구성, 우리의 그림책 등의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4일간의 강의 일정속에서 지역 교사들의 모임인 그림책나라(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들의 모임)와 한나라잡기(통일 학습, 통일기행 교사모임)의 소개 및 선전이 계

속되었고 수강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그림책나라 주최 '좋은 그림책 전시회'와 배포된 '좋은 그림책 목록집'은 보육학교 수강생들의 학습의 열의(?)를 더해 주며 알찬 보충수업(?)으로 충분했다.

11월 8일, 4강을 끝으로 짧은 학교를 마치는 졸업식을 가졌다. 수강생 모두 바쁜 일과를 쪼개 참여한 학교였지만 한결 같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과 강의만 듣는다고 또 시간에 쫓겨 동창생으로서 서로 친해지지 못한 서운함, 더 전문적 내용을 심화시켜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를 서로 나누며 평가서도 쓰고 수료증도 받고 졸업식이후의 뒷풀이를 즐겼다. 내년 2기 보육학교를 기약하며...

하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야간엔 보육학교를 준비하며 9월, 10월 두달을 바쁘게 보낸 광탁위 식구들에겐 제1기 보육학교를 끝내며 보람과 함께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대상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전문내용의 불충분과 요구의 다양화, 좀더 여유롭고 재미있는 진행방식의 부족, 참가자에 대한 다양하고 친숙한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 점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보육학교 수강생들과 함께 한 평가(평가서 제출) 속에서 그리고 준비주체들의 성실함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새싹을 가꾸는 희망공동체"를 일궈냈다. 보육현장의 핵심인 보육교사들의 올바른 의식과 조직력이야말로 보육운동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됨을 각인하며 97년, 98년 그 이후까지 내내 지역 보육교사들과 보육세력들의 터전을 이끌어갈 '아이사랑 보육학교'를 다짐해 본다. [서탁연]

◆현장소식 - 셋

계란으로 책상(?)치기

문 유미(인천, 예술어린이집 교사)

오늘 아침은 유난히 아이들이 북작거린다. 요리실습의 날!

매주 이날이 되면 아이들은 으레히 교실과 마루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오히려 조용하면 교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손씻고 오세요"

"- 네 -"

"자, 오늘은 선생님이 쟁반에 여러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 알아맞추기게임 할까?"

눈을 감고 맛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재밌다.

"와아, 이건 짜다. 설탕이야 설탕."(소금)

"후우, 아휴 매워. 이건, 고추장이죠 선생님?"(고추가루)

"이건 냄새가 지독해. 닭냄새가 난다."(날계란)

"얘들아, 이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할까 하는데 어떤 요리를 하면 좋겠니?"

"계란 후라이요.", "아니요, 계란에다가 요, 햄, 맛살넣고 튀겨(?)요." 요리방법은

많지 않았다. 아이들은 집에서 먹어본 익숙해진 계란부침이 제일이라는 듯 계속 그것만을 외쳐댔다.

"그래, 계란 부침하기로 하자."

"야, 좋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왜 설탕을 가져왔는지, 왜 고추가루, 밀가루, 식용유, 소금, 깨등을 가져왔는지 계란부침에 무엇무엇이 들어가야 맛있는지 알지 못한다. 나역시 먼저 계란부침을 위해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그저 아이들이 놀상 먹어왔던 또는 가끔은 요리하는 엄마를 직접보면서 알아왔던 계란과 계란부침에 대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과 여러가지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외에는 말이다.

"계란은 동그란데 길쭉하다, 오이처럼."

"날계란은 만지면 끈적거리려."

"계란은 흰자와 노란색 노른자가 있어."

"계란을 풀어주면 삼십밤(?)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지?"

"TV에서 봤는데 어떤 아이가 계란을

옷속에 넣고 품어주었는데 병아리가 안 나왔다."

"그건 닭은 따뜻한 털이 있는데 사람은 털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거야."

"그래 맞아, 사람은 털이 없어서 추우니까 옷을 입는거구 동물들은 털이 있으니까 안입어도 돼"

"계란은 그냥 먹어두(날계란) 맛있다."

"난 맛이 지독하더라."

계란에 관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몇가지 계란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는 요리에 들어갔다. 가스렌지에 불을 켜주는 일은 위험하다며 아이들은 교사인 내가 해주길 바랐다. 그후의 과정은 자기들이 해보겠다며 대단한 각오를 한듯 어깨에 힘이 가있는 아이들을 보며 요리가 엉망이 되어도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일단은 4명씩 팀을 나누고 팀이름까지 정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차례를 정하기도 한다.

"선생님, 우리팀은 아람이(5세)가 제일 먼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6살 형님들은 마지막에 하고요."

"왜 그렇게 순서를 정했는지 얘기해줄래?"

"음... 나중에 하면요 후라이팬이 뜨거워질테고 그럼 기름이 튀잖아요. 위험하니까 조금 뜨거운 처음에 동생들이 먼저 하는게 좋겠어요."

어쩐, 이렇게 의젓한 생각을 했을까? 그 아이들을 한번씩 꼭 껴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아이들의 자신감은 하

늘 끝까지 솟아오른다.

5살 성민이의 차례다. 우물쭈물하는 성민이에게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성민아, 기름을 후라이팬에 넣어."

"올지, 잘했어."

"성민이 잘해라, 성민이 잘해라."

아이들이 격려를 해주었건만 성민이는 계란을 깨뜨리는 찰라에 주춤거린다.

"어떻게 해-, 잘 안깨지는데."

"야, 성민아. 계란으로 책상을 탕탕 쳐, 올지!"

책상으로도 계란을 깨지 못하던 성민이가 주춤거리며 손가락에 힘을 주자, '탁'하는 소리와 함께 계란은 성민이의 손에 반은 흐르고 반만 후라이팬에 흘러내렸다.

"잘했다, 와(박수) 성공이다."

반쪽이긴 했어도 성민이의 손에서 흰자, 노른자가 튀었게 흘러내린 계란은 후라이팬에 얇고 큰원을 그리며 익어가고 있었다. 성민이의 얼굴에서 두려움의 빛이 사라지고 기쁨과 놀라움의 빛이 가득 찼다.

"타겠다, 빨리 뒤집어."

"아니야, 이걸 넣어야지."

"근데 애들아, 여기에다 무얼 넣으면 될까?"

"성민아, 고추가루를 넣어라. 그래야 맵지. 그리구 설탕도 넣어."

김치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성민이는 소금은 제쳐두고 고추가루와 설탕만 넣어 계란부침을 만들었다. 뒤집기를 힘겹게 움직이는 성민이가 안쓰러웠는지 영주(5세)가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선다.

"야! 기름 먼저 넣은 다음에 계란넣어"

아지."

"아니야, 계란 먼저 넣고 기름넣는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해."

정희는 엄마까지 들먹이며 계란이 먼저라고 우겨댔다. 끝내, 우리는 후라이팬에 넣어붙은 계란을 떼어내느라 한참을 고생했다. 하나둘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끝까지 혼자 힘으로 계란부침을 마무리한 아이들은 이제 그릇에 들어있는 계란을 마구 으깨기 시작했다.

"비빔밥처럼 섞어야 맛있어."라는 한 아이의 제안에 모두 재빨리 자기 것을 잘게 부수기 시작했다.

두번째 계란요리 실습날.

이름하여 계란 김말이!!

이제 성민이는 계란을 주저없이 깨뜨려서 후라이팬에 넣는다. 뒤집기를 잘못 해 힘들어하던 아람이도 아직도 능숙해진 않지만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쓴다. 계란이 채 익기도 전에 뒤집기로 계란을 누르면 뒤집기에 계란이 묻어 막상 뒤집을 때 잘 뒤집혀지지 않는

다는 것도 알았다. 날계란의 흰자는 물색인데(?) 부침하고 난 흰자는 하얀색으로 변한다는 것과 기름이 뜨거워지면 부스러진 계란이 위로 뜬다는 것도 알았다.

주춤거리는 친구를 함께 응원해주는 아이들! 그런 응원속에서 자신감을 배워가는 아이들! 아직은 음식에 소금은 별로 필요치않고 설탕만 들어가면 맛있어진다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좀더 많은 요리 실습을 거쳐가면서 개별로 있을 때 전혀 맛이 없고 불품없던 소금이 다른 음식과 조화를 이룰때 가장 훌륭한 요리 재료라는 걸 알게 되리라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격려받던 요리실습은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발견의 기쁨을 알게하고 친구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으리라 하는 것 또한 확신한다.

가정에서도 파다듬기로부터 간단한 요리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보게 될 것이다. 요리 과정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기쁨과 자신감에 충만한 반짝이는 눈빛을... **서택연**

'우리네 방앗간'을 이용합니다.

'우리네 방앗간'에서는 그동안 교통문제로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점을 직소스럽게 생각하며, 최선회 재정사업국장이 손수 운전을 배워 경인지역정도는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지역의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네 방앗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지역위원회별로 ① 매달 '우리 떡 먹는 날'을 정하여 신청하기 ② 생일잔치는 매월 동일한 날에 생일떡케익을 신청하기 ③ 영아식으로 미숫가루를 신청하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시 주의할 점은 미리 1주일전에 연락을 주셔야 친절없이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주에 한번 정도는 지역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 모색해 봅시다.

품목 : 각종 떡류, 생일떡 케익, 고추가루, 참기름(7,000원/병), 들기름(4,500원/병), 미숫가루(5,000원/kg).

◆현장소식 - 넷

아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을 읽고

이 애용(남부, 새터어린이방 교사)

편집자 주 : 남부지역 영아교육토론포럼에서 학습, 토론한 내용입니다.

참석 : 다우리(오연환, 백해영, 이미령, 김호연)

새터(김진숙, 김옥희, 차윤희, 이애용, 이현경)

오연환-전 이 책에 나오는 '눈 속의 도시'가 인상 깊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눈을 그리는데 벽에도 칠하고 다 칠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 그럴까?" 하면서 실제로 눈을 뿌려보고, 그런 뒤에 그런 그림에는 눈이 벽 위, 차 위에만 쌓여 있는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공통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이 길이를 재기 위해 큰 운동장에 가서 직접 누워보고 길이를 재는 것도 그렇구요. 각자 집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고 와서 만드는 것도...

그리고 남아와 여아의 차이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달라졌어요. 아이를 보면서 소리를 덜 지르게 되고, 관찰을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 스스로 해보도록 하고요. 안되겠다 싶으면 잠깐 개입을 하지만... 전에는 이런 것이 방임이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결코 방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에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김호연-맨처음 책을 읽을 때 와! 했어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좀 달랐어요. 배울 것도 많고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의 특성과 배경 속에서 세심한 교육적 배려와 조건이 제공되는 것이 부러웠지만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서 갑갑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우리의 조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지 모르겠고, 당장 나 자신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공통 프로젝트를 읽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사들의 사고가 폭넓은 것은 그만큼 교사의 경험이 풍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스스로 생각을 고정화시키지 말아야겠고 때로 엉뚱함도 필요하겠어요. 교사가 아이들의 엉뚱함, 아이들의 유별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아이들의 창의력도 발휘될 수 있을 거예요.

차윤희-우리는 흔히 남에게 보이려고

환경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을 배려한 환경과 공간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이 부러웠어요. 또 하나 부러웠던 것은 지역주민과 학교, 교사, 조정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이렇듯 아이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주위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교사들이 충족시켜줘야 하고, 자극을 줘야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루하루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김진숙-공룡 프로젝트는 23년 전에 한번 봤어요. 그때 읽으면서 '대단하다,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읽으면서 멀리뛰기 프로젝트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흥미로웠던 것은 자로 측정하는 부분이었어요. 흔히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쳐주고, 1cm, 2cm,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책에서 아이들이 자를 알아가는 과정이 놀라웠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도록,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어요. 부러운 것도 많았어요. 특히 공간이나 교사들의 조건이...

하지만 계속 드는 느낌은 '그래 레지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올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적용한 예를 쓴 사람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맞아, 똑같이 수는 없어.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야 돼' 하며 위안을 했어요.

비록 시설도 좁고, 아이들도 어린 영아지만 수준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젝트 접근법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재료를 줄 때 충분한 시간과 더불어 그것의 쓸모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제공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 아이들에게 풍선을 한동안 매일 준 적이 있었어요. 큰 아이 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들까지 풍선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아, 아이들도 계속하면 할 수 있구나'하는 것을 알았어요. 가위도 주위를 어지럽히고 위험하다고 해서 어쩌다 한 번 꺼내준 걸 매일 주니까 가위질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교사가 귀찮다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막고 있던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애용-저도 처음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이 오랫동안 갔는데 지금은 이진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적용할까 고민이 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누구 말대로 더 관찰을 하게 되고 나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단오와 아삼이 두명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게 되었는데 전 같으면 '오늘은 어디를 갈까' 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해서 '에들아, 오늘은 놀이터 가자'하고 말했을 텐데 이젠 생각이 바뀐게, 밖에 나오면서 갈 곳을 내가 정해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책을 읽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게 아닌가 해요. 단오한테 두 갈래 길이 나올 때마다 "단오야 어느 길로 가고 싶니?"하고 물어봐서 단오가 가는 대로 꼭 따라갔어요. 신호등이 있는 곳과 가로수가 있는 두 갈래 길에서 다시 "어느 길로 갈래?" 했더니 단오가 신호등을 건너겠다고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정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맡기니까 나도 굉장히 편함을 느끼고 그 아이들도 갔다오고 난 후 굉장히 즐거워 하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어린이집에 장기간 근무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덜 받고 더 즐겁게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현경-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는데요. 신호등에 대해서. 신호등이 몇 분마다 바뀔까? 몇 걸음에 건너 수 있을까? 빠른 걸음으로 건너 보고 천천히 건너 보고 등등.

김호연-아래층(5-17개월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는 교사가 일방적이기 쉽잖아요. 아이들한테 말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갖게 되는데, '할래, 할까' 하는 제시형보다 '하자'라는 단호한 면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 예전에는 왜 울지?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예가 울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것도 일방적일런지도 모르지만 아이가 우는 동안에 "진정해, 진정해"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래?", "이거 하려는 거지?"하며 아이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고, 조금은 급한 성격이 수그러졌어요. 또 막 울고 있는 애한테 예전에는 당황해서 일단은 울음을 그치게 했는데 지금은 울더라도 조금 두고 봤다가 진정이 되면 물어보는 여우가 생겼어요.

이미령-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서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이, 다들 비슷하겠지만, 어린 아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 영아를 돌보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안떠올라요. 책을 읽을 때와 생활할 때의 괴리가 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했던 방식을 어떻게 영아에게 접근해 갈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하는 고민들을 잠깐 잠깐 해보긴 하지만 참 안돼요. 영아들과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의 역할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접목해 들

어가야 할 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제시해준 것도 없고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없었어요.

이 책을 읽고 저 자신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 아이들의 상태가 어떻고 아이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나 자신을 맞춰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아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에 맞춰 주는 것 그런 작은 부분이 변화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와!하는 교사로서의 역할과 아이들의 그런 것들은 스스로 체화되지 못한 면이 커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겠죠.

큰 아이를 맡고 있지 않으니깐 사실 참 낯설어요. 나보고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조차 낯설어요. 왜냐하면 해주던 부분만 계속 해왔으니까, 아이들 배고파서 칭얼댄다든지, 뭘 요구하는 것에 맞추는 이런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큰 아이들도 내가 무엇인가 자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는 게 어렵고 여기서 말하는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호자의 역할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한편으로는 큰 아이 정도면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지한때 일곱살 짜리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을 때 큰 아이와 비교가 많이 돼요.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조건 정도면 프로젝트식 접근법을 시도해도 될만한데, 우리나라의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방식대로 나가요. 주제에 따라 일주일의 교육계획이 나오면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아이들에게 재료를 가져오게 하고 재료를 가지고 해보는 식으로.

아이들의 관심에 항상 맞추거나, 프로젝트를 할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틀에 짜여있는 교육, 그것도 1년 전과 똑

같이. 단지 선생님의 판단에 아이들이 너무 관심있어 하면 일주일 연장시키는 그런 융통성은 있지만 엄마로서는 다른 욕심이 생기죠.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 접근방법을 우리에 맞게끔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지를 생각하되,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영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돼요.

이애용-저도 18개월 이전의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아들에게는 색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는데 딱 떠오르는 것은 없고,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백해영-이 책에 나오는 연령대의 아이들과 우리가 돌보는 영아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선 상에 놓고 얘기해서는 안되겠죠. 분명히 극화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상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발전해가는 측면만 강조될 수 있는데, 교사들이 이론적 토대도 탄탄할 뿐더러 그것을 탐구하는 자세가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략의 교육을 정리하고 새롭게 우리교육을 정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왔던 10년간의 교육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론적 토대도 굳건히 해야겠어요. 사실 우리교사들은 이 책에 나오는 비고츠키니, 피아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을 통해 아동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프로젝트식 접근법을 적용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막하다고 하는데, 물론 혼자 해결하기에는 힘들겠지만 함께 해결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 뿐 아

니라, 교사와 교사의 관계가 대단히 개방적이고 교사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 자기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흔히 자기 교육방식에 대해 어떤 교사가 개입을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을 고집하게 되는데, 그와 비교할 때 열려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지오 에밀리아 유아교육이 하나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아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또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연환-생각나는 게 있는데 애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놀라거든요. 한달 전에 대추따기를 했어요. 바깥에서. 그 다음부터 대추따기를 다섯번인가 여섯번인가를 했어요. 처음에만 제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모(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이모라 부름), 대추따자"해서 계속 대추를 따어요. 아이들이 좋아서, 맛도 보고. 처음에는 제가 따줬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막대기를 갖고 와서, "이걸로 따면 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안돼서 제가 "이걸로 따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지?"했더니 "외자를 갖고 올라가면 되요"해요. 다 애들이 생각해 낸 거예요. 내가 다시 "외자 하나 갖고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니까 "외자를 쌓아서 올라가면 되요."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이 해본다고 했는데 위험스러워 보여서 "너희는 위험하다. 이모가 오늘은 대신 따게"하고 그날은 제가 따어요. 그 다음 날 다시 바깥놀이를 갔는데, 또 한 아이가 "우리 대추따자"하며 갈고리를 갖고 오더니 안되겠는지 긴 막대기를 갖고 왔어요. 그 아이가 "내가 따줄게" 하고는 막대기를 보더니 안되겠는지 외자에 올라가서 쳐요. "외자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하니까 "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또 따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안됐어요.

"안되는데 어떻게 하니?" 했더니 더 높은 의자를 가져와야 한다며 의자를 찾는데 없잖아요. 마침 대추나무 근처에 사다리가 있었는데 사다리로 올라가면 된대요. 처음에는 저보고 올라가서 따 달래요. 그래서 제가 "싫어, 오늘은 너희들이 따주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올라가겠대요. "그래, 조심해서 올라가. 떨어지면 다치잖아. 조심해야돼" "네, 조심해야돼 조심해야 돼"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래도 안되는 거예요. "안돼요, 안돼요, 이렇게 해도 안돼요, 어떻게 하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저씨가 따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면서 관찰자로, 아이들을 봐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그렇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현경-여기서 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써 놓은 것을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물어보는건데, 만약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할 때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할 거 아니에요? 영감에 의해서, 어린이의 단어를 잡아서 불꽃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다우리에서 대추따기 활동을 통해 어떤 주제를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연환-그 생각은 안해봤어요. 애들 말을 존중해주고 저희들이 하는 기본틀에서 좀 더 아이들에게 개방적이고 과감해지고 믿어주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예로 든 거예요.

이현경-예,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놓고 교사가 "어머니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해서 갖고 와서 하는게 아니고 아이들로부터 나온다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육방법부터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책의 매력 아니겠어요? 교사의 역할에도 나오는데 지난 번 토크가 어린이집 숙자 언니가 그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미국사례에서도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우리 어린이집에서 1년에 두차례 만이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교사에게 준비할 시간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데려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활동가가 있을 때나, 실습 선생님이 오실 때, 그런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혼자 생각해봤어요.

오연환-실제로 한다면 관심이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야 할 텐데 아이들의 관심사를 파악해내고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현경-아까도 아이들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냥 아이들의 능력을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 뿐이고 믿고 있지 않았어요. 위험할까봐 안 주고, 어리니까 안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고 할 때도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백해영-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적용해볼 것인가는 교사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현장에서 시도해보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탁아소 별곡

가람놀이방에서 있었던 일

가람놀이방

■ 이상한 이불

윤경(5세)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마는 달, (오랫동안 이불을 덮고 잤다.)

윤경 : "이상한 이불이다."

선생님 : 뭐라고?

윤경 : 이상한 이불이라고요.

선생님 : 왜? 뭐가 이상한데?

윤경 : 처음에는 차가웠는데 지금은 더워 죽겠어요.

■ 결혼이야기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 다들 이야기를 하던 중...

미정이 선생님 : 미정이 선생님이랑 결혼할 사람?

송훈 : 저요~

미정이 선생님 : 그럼 송훈이는 선생님이랑 항상 같이 있어야 해~

송훈 : 안돼요. 엄마오면 집에 갔다와야 해요.

미정이 선생님 : ???

■ 나는 커서 무엇이...

선생님 : 영상이(6세)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영상 : 경찰이요.

선생님 : 그래, 영상이는 멋진 경찰이 될 수 있을꺼야.

영상 : 선생님은 커서 뭐가 될거예요?

선생님 : 선생님은 다 컸어요.

영상 :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커서 뭐가 될거예요~?

선생님 : 선생님은 커서 이렇게 선생님이 됐잖아.

영상 : 아니예요~. 선생님은 더 커야 돼요.

선생님 : ???

■ 아! 너 왜 나한테 반말쳐?

벽걸이에서 제각각 놀고 있던 상훈(3세)이, 영상(6세)이가 다가오자 제각각 하나 내밀다...

상훈 : 영상아 응! 이거 갖고 놀아.

영상 : (잠깐 생각한 뒤) 아! 너 왜 나한테 반말쳐?

(상훈이가 요즘들어 부쩍 형과 누나들이랑 놀더니 다 친구인줄 아나?)

■ 토요일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종종 자그맣게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상빈(5세) : 나 마상빈이 안하고 다른 이름 할래.

다빈(4세) : (상빈이 동생이다) 나도 다빈이 안하고 이름 바꿀꺼야. 잠시 뒤,

상훈 : 다빈아~

다빈 : "아! 나 마다빈이 아니야" 하며 상훈이를 때린다.

상훈이 : (방바닥에 엎드려서) 앙! 앙! 앙!

선생님 : 다빈아 왜 상훈이 때리니?

다빈 : 나 이름 바꿨는데 상훈이가 다빈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 ???

■ 큰 영화

오전 자와어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왼쪽 책상에 둘러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책을 보고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지...

다혜(3세) : 선생님! 나 아빠랑 영화(영화) 봤어요.

선생님 : 뭐? 영화? 정말 영화 봤어?

다혜 : 네~. 아빠랑 봤어요.

선생님 : 무슨(?)영화 봤는데?

다혜 : 큰~영화 봤어요.

■ 돌머리?

오전간식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 다빈(4세)이 밥을 먹고 깨달지 않고 자고 책상에 도드려다 장난을 친다.

선생님 : 다빈아! 밥은 이로 깨물어서 먹는거야.

다빈 : "아니예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먹어요" 하며 이번에는 밥을 머리에 부딪힌다.

선생님 : 다빈아! 머리에다 부딪히면 안되지.

상빈 : 나는 머리에다 안해. 내머리는 컴퓨터야.

다빈 : 내머리는 텔레비 머리아.

성현 : 내머리는 돌머리아.

선생님 : 하하하...

육아정보

“애는 애대로, 재는 재대로...”

육아정보 제안(아이들의 기질)

오 선영(한국 보육정보 연구소)

아이들의 맑고 새까만 눈동자를 보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만들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씩씩이 털어내고 깔깔웃는 얼굴을 볼때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신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든 후에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했을때의 기분이 바로 이런걸까! 예쁘고 사랑스럽고 거기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조그만 감동을 가져다 줄 때면 우리네 엄마 아빠들은 더더욱 신의 마음이 된다. 하지만 이런 기분도 잠깐, 아이들은 설새없이 엄마 아빠를 혼련시킨다. 밤새내내 무엇이 못마땅한지 울어대는 아이, 낯선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우는 아이, 다른 친구를 만나자마자 울고 때리고 부산스러워 엄마를 당황하게 만드는 아이, 말과 행동이 다른 애들보다 늦은 아이..., '너무 까다로워서' '너무 늦어서'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어야 할지 몰라 또는 나름대로 반응을 해주어도 아이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 육아에 지치게 마련이다.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다양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을 양육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상호작용해 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아이의 기질이란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아이가 양육되는 방식은 부모의 성격 뿐만 아니라 아동자신의 성격에도 기인한다. 아이는 출생 직후 사람에게 접근하고 상황에 접근하는 자기나름대로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질(temperament)'을 발달시킨다. 기질은 Thomas, Chess와 Birch(1968)의 뉴욕종단연구(NYLS: New York Longitudinal Study)에서

① 깨어있는 동안 신체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활동성 수준

② 수면, 배설, 식사시간 등과 같은 생물학적인 기능의 규칙성

③ 새로운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성

④ 변화에 대한 적응성

⑤ 기분

⑥ 반응의 강도

⑦ 감각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

⑧ 산만함

⑨ 지속성 등 9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9가지 차원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높고 낮은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아이의 기질은 순한 아이, 어려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순한 아이는, 영아기 동안 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 사람과 음식에 쉽게 적응한다. 유아기에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빨리 습득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며, 학교생활에도 쉽게 적응한다. 어려운 아이는, 영아기 동안 먹고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며, 좋고 싫은 감정의 표현 정도가 강하다. 또한 좌절감을 느꼈을 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며, 반응정도가 낮고, 낯선 상황이나 사람에게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느린 아이는, 반응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약하고 느리다. 첫 목욕, 새로운 음식의 첫 맛, 또는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과 같은 대부분의 새로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새로운

상황을 부담없이 다시 경험하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국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아이들의 기질적 특성을 알아보고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낯선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우는 아이, 다른 사람을 만나자마자 부딪치고 울고 때리고 산만한 아이는 어려운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마자 불임성 있게 반응하는 아이는 순한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매사 한동안 관찰을 해보고 조심스레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는 늦은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육자는 아이의 기본적인 기질을 알아내어 그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한다.

순한아이의 경우, 어려운 아이나 느린 아이에 비해 활동이나 생물학적특성, 대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가장 원만한 행동특성을 보이므로 자칫 교사나 부모의 관심을 덜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아이일수록 양육자는 가끔 개별적인 상호작용의 시간을 배려하고, 아이에게 매일 '항상 즐겁고 명랑하게 생활하는 네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한다'와 같은 언어적 또는 신체적, 애정적 표현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감을 주고난 이후에는 놀이나 아이의 생활도중 가끔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아이는 더욱 좋아하게 된다.

어려운 기질의 아이의 경우, 양육자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

구되는 과정이다. 만일 양육자가 아이를 다룰 때 비 일관적이고 처벌적인 경우, 다른 기질의 유아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늦은 아이의 경우, 아이에게 자신의 속도로 환경에 적응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양육자가 이런 기질의 아동에게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하도록 서두르면, 위축되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유아는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 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양육자는 이런 유형의 아이가 새로운 놀이감이나 친구와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가까이 머물러 있고, 아이가 어느정도 적응하게 되면 옆으로 물러나서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제공하는 과정에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질적 특성이나 상호작용방법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활동적인 기질을 가진 유아의 경우 비좁은 공간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양육자는 이러한 유아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환경을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놀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름을 불러도 곧바로 오지 않고 느리게 반응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꾸중을 하기 보다는 아이가 반응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거나 아이를 가볍게 안으며 부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표현이 소극적인 아동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의 고집스러움, 적대감,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 때문에 특정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부모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부모가 죄책감, 적대감, 불안감, 짜증스러움을 가지고 반응하거나 참을성과 일관성 없이 엄격한 행동으로 아동에게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동의 기본적인 기질을 깨닫게 되면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지 몰라, 재는 저렇게 순하고 명랑한데..." "재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도 느리고 행동이 굼뜰까!" "왜 이렇게 수선스럽고 말썽만 피우지? 재처럼 얹전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라는 말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간혹 보기에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요즘 엄마들을 볼때면 이런 생각을 해본다. 비교하지도 속상해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사랑하되 걱정하지 말자. 아이 각자의 특성에 맞춰 때로는 아이를 통해 참을성을 배우면서 때로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면 되지 않을까. 애는 애대로 재는 재대로..... 말이다. **[그림책 소개]**



그림책 소개

『뛰어라 메뚜기』

고 영미(안산 진달래동산 교사)

출판사 : 보림 / 가격 : 6,000원

다시마 세이조 : 글/그림

지난 여름 가을 어린이집 아이들은 산으로 들로 놀이터로 많이 뛰어다니며 자연을 만끽했을 것이다. 뛰어다니는 만큼 몸도 마음도 컸을 것이고.

산과 들, 놀이터, 물놀이에서 본것은 많았을 것인데 그중 살아움직이는 것중 아이들의 관심을 받은 여러 곤충과 동물중 메뚜기는 아이들 머릿속에 아주 인상 깊게 기억되었을 것이다.

야산이 있는 놀이터에 가면 어김없이 메뚜기를 잡아와 자랑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제는 추워서 바깥놀이도 자주 못가니 지난 여름과 가을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림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뛰어라 메뚜기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강렬한 선과 터치에 있다.

꼭 풀그림 같다.

색도 시원시원하고 보는 순간 마음이 후련하다.

그림도 대담하고 문장은 아주 간결하다.

힘 없고 조그마한 메뚜기가 수 많은 천적들 속에서 아슬아슬 숨어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다.

대담하게 살아가기로.

여지껏 한번도 써본 적 없는 날개로 아슬아슬 날아간다.

꿈과 희망을 향해.

아이들과 보면서 지난 여름 바깥놀이의 추억에 잠겨보는 재미를 느껴 보시길...

겨울에 권하는 좋은 그림책

어린이 도서 연구회

편집자주 :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최근에 발간한 '97 학년별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 유아·초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목록'에서 한겨울 우리아이들과 겨울의 정서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여 실었습니다. 이책목에서 책한번 읽고 눈오는 거리에서 소리소리 지르며 눈싸움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1, 2세>

「달님 안녕」

하야시 아키코 글·그림 / 한림 / 17쪽 / 3,000원

감청색의 어두운 밤과 노란색 달빛의 대비가 두드러져 어린 유아의 눈을 강하게 잡아끄는 그림책이다. 지붕 위로 차츰차츰 떠서 환해지는 달님과 달을 뒤덮는 구름, 고양이 두마리와 아이의 모습이 단순하면서도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달님에게 이야기하는 식의 말들도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어휘로 되어있다.

「잘자요, 달님」

마거릿 와이스 브라운 글 / 클레먼트 허드 그림 / 시공사 / 30쪽 / 5,500원

잠이 안 오는 밤, 아기 토끼는 커다란 초록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인사를 한다. 색 그림으로 전체 방 모습이 흑백 그림으로 세부적인 것들이 소개된다. "잘자요"하는 인사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주고 있다. 아기 토끼가 그 모든 것들에게 인사한 뒤 잠이드는 마지막 장면이 특히 아름답다.

<3, 4세>

「꼬마 곰, 코듀로이」

돈 프리먼 글·그림 / 비룡소 / 28쪽 / 6,000원

백화점에 있는 장난감 가게의 곰 인형 코듀로이가 소녀에게 팔려가 소녀의 친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그림만으로도 재미있게 이야기가 전달되며 꼬마곰 코듀로이가 인형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귀엽고 정다운 모습으로 잘 의인화되어 있다. 아이들은 코듀로이와 같은 모양의 곰 인형을 보면 살아 있는 친구를 대하듯 할 것이다.

「나무」

엘라 마리 그림 / 시공사 / 32쪽 / 5,500원

커다란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표현한 그림책이다. 나무 한 그루와 주변 환경, 계절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변화를 잘 표현하였다. 다람쥐나 철새들과 계절에 따른 나뭇잎의 변화가 그림에 변화를 준다. 부모나 어른들이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겠다는 욕심 없이 그림을 그대로 감상하게 해주면 좋다.

「피터의 외자」

에즈러 잭 키즈 글·그림 / 시공사 / 28쪽 / 5,500원

아빠와 엄마가 갓난 여동생에게만 신경을 쓴다고 느낀 피터는 잠시 밖에서 자기 물건들을 놓고 시위를 하다 엄마가 신경을 써주자 약간 마음이 풀린다. 동생 때문에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끼는 유아들의 심리, 엄마의 조그만 배려로 마음이 풀어지고 또 스스로가 많이 컸다고 느끼는 아이의 모습이 재미있다.

「장갑」

우크라이나 민화 / 예우게니 M. 라초프 그림 / 김중철옮김 / 다산기획 / 16쪽 / 5,500원

눈 내리는 숲에 할아버지가 장갑 한 짝을 떨어뜨리고 지나가자 숲에 사는 동물들이 장갑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다. 점층적 흐름 속에 동물 주인공들이 리듬감있는 언어로 뛰어 가는 러시아 민화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동물들의 태도 속에 생명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인정이 스며 있다.

<5, 6세>

「눈사람이 된 풍선」

류재수 글·그림 / 보림 / 40쪽 / 6,000원

하늘로 올라간 풍선이 달님, 별님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터져 버린다. 그 바람에 구름끼리 부딪쳐 눈이 내린다. 다람쥐가 떨어뜨린 도토리가 눈 위를 굴러 눈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장면 전환이 활발하면서도 장면 하나 하나가 연결되어 통일감이 있다. 그림으로만 된 그림책으로 처음엔 그냥 훑어보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보면서 이야기 해보면 좋겠다.

「눈오는 밤」

닉 버터워스 글·그림 / 사계절 / 24쪽 / 5,000원

공원지기 퍼시 아저씨는 공원 근처에 사는 동물들에게 항상 먹이를 나눠준다. 어느 추운 겨울날, 퍼시 아저씨의 집으로 동물들이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구하러 온다. 좁은 곳에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던 동물들은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편안히 잠을 잔다. 퍼시 아저씨의 온화한 표정과 아름다운 수채화로 표현된 공원 풍경과 동물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딸기밭의 꼬마 할머니」

와타리 무즈코 지음 / 나카타니 치요코 그림 / 한림 / 32쪽 / 4,500원

딸기가 빨갭게 익는 것은 딸기밭의 할머니가 부지런히 물감을 칠하기 때문이다. 봄이 오기 훨씬 전인데도 할머니는 딸기를 물들일 빨간 물감을 만들어 딸기에 칠한다. 날씨가 따뜻해 딸기 꽃이 피려 하기 때문이다. 다음날 눈이 내리고, 할머니는 숲 속의 동물들이 눈을 파헤치고 딸기를 먹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정승각 글·그림 / 통나무 / 32쪽 / 6,000원

우리 나라 토종개인 삼사리를 주인공으로 한 전래동화인 '불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다. 삼사리와 현무, 주작, 청룡, 백호는 모두 부조로 만들어서 모시로 덮은 뒤 오방색과 금니로 그려 우리 전통 회화의 맛을 살렸다. 바탕으로 우리만이 지닌 독특한 정서를 흠뻑 느끼게 할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깃털없는 거위 보르카」

존 버닝햄 글·그림 / 이진수 옮김 / 비룡소 / 30쪽 / 6,000원

장애아 문제를 다룬 그림책이다.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깃털없는 거위로 태어난 보르카가 겪는 슬픔과 고난, 행복을 찾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외국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없고, 선장이나 배, 오리들의 모습이 너무 서구적이라는 점과 사건이 주인공 보르카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리그 그림 / 가나 / 30쪽 / 5,000원

눈오는 날 아침 소년은 눈사람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보살피 준다. 소년과 눈사람 아저씨는 친구가 되어 놀이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는다. 눈사람 아저씨와 함께 모두 잠든 밤에 풍선을 불고 날아다닌다.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이어지는 파스텔화 그림책으로 느낌이 따뜻하다.

「산타할아버지」

레이먼드 브릭스 글·그림 / 박상희 옮김 / 비룡소 / 32쪽 / 6,000원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는 이야기다. 산타 할아버지는 날씨가 춥다고 두덜거리고, 굴뚝과 검댕이가 지겹다고 하면서 열심히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돌아온다. 산타할아버지가 현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 할아버지로 그린 점이 좋다.

건강하게 삽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한몸짓기 생활건강요법(1)

◇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해(公害)의 극복을 위하여 ◇

어린이 건강 교육 연구회

2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의 세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다. 아니 무겁다. 못해 암담하게 느껴진다. 어떤 때는 그 암담함의 무게로 하여 숨이 막혀 버릴 것 같은 무서움에 사로 잡힌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희망의 징조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좀 쉽게, 편하게, 세련되게 살아보려고 했던 어른들의 바람과 노력이 온 우주를 부서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발전의 결과가 우리 삶,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가공할 장벽을 쌓아 놓았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바라보는 현대의 가공할 공해 앞에서 그 모든 노력과 인간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바라보는 현대의 가공할 공해 앞에서 그 모든 노력과 인간이 이룩해 놓은 지적(知的), 문화적(文化的) 유산들과 이론과 사상들이 일거에 무색해지고 허망해진다.

이런 느낌은 어린이평화학교만의 감정일까? 지레 겁을 먹고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는 것 자체가 공해의 연속으로 영위되는 우리들의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 누구나 건강이 최고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지고 별 희귀한 질병들이 늘어나도 좋다는 약과 식품을 먹어도, 그 바른 생활속에서 몇날 며칠을 병원에 다녀도 그 혼한 감기조차 잘 낫지 않는다.

어린이평화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현대의 질병을 공해독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공해독으로 인한 질병에 기존의 동서양의 의학적 조치들은 종종 속수무책이다. 기존의 동서양의 의학은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해를 거의 상정하지 않은 의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인류가 존재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은 질병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기존의 의학적 조치들이 몸에 대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의 몸에 대해서 또 하나의 무시못할 공해가 되는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은 어머니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몸이 건강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먼저 어머니는 지혜로워야 한다. 넘쳐 나는 각종의 정보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옛 속에서 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의 공해독으로 부터 그 자신의 몸은 물론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난 의사도 아니요, 국가나 정부도 아니다. 바로 어머니 자신이다. 현대의 공해 앞에서 동서고금의 난다 긴다하는 사람들의 각종 의론(醫論)들이 너무도 자주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이 지키는 일은 현대에 있어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그 방법과 생활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일상생활의 작은 것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배우고 실천해간다면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소중한 몸의 원리들을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아울러 아이의 몸의 원리, 생리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아이의 가장 믿음직하고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 호에서는 집에서, 혹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터에서 누구나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와 방법으로 아이들의 몸의 이상을 치료하는 한몸짓기건강요법들을 정리해 볼까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요법들은 현실에서 많은 임상경험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본 것이므로 꼭 실천해보기를 당부하고 싶다. 아예 상비약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1. 백반을 이용한 여러가지 요법

1) 백반(명반)의 성질과 효능

※ 백반의 성질...백반은 명반석을 정제한 것으로 무기질의 일종이다. 백반의 맛은 시고 멀으며 담(淡)을 삭이는 작용, 습(濕)을 없애고 벌레를 죽이고, 독을 풀며 수렴작용을 한다. 백반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고시키므로 수렴작용을 하며, 피를 멎게하고 살균작용, 억균(抑菌)작용, 방부작용도 있다. 또한 새살이 잘 나게 한다.

※ 백반의 효능...입안염, 인후두염, 습진, 옴, 중이염, 연주창 등에는 외용약으로 쓰이고, 위출혈, 설사, 이질, 간질, 황달, 이슬 등에는 먹는 약으로 쓴다.

2) 백반의 실제 응용

백반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약국에서 명반이라고 해서 파는 데 한번에 두세봉지를 구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대로의 백반은 약간의 독

성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조치를 해야한다. 즉 백반을 물기없는 못쓰는 냄비나 후라이팬에 그대로 부어서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끓인다. 백반가루는 1,2십분이 지나면 지글지글 타다가 물처럼 완전히 녹는데, 계속 놔두면 다시 굳기 시작한다. 완전히 굳어지면 그것을 곱게 가루내어 쓰는 것이다. 이를 고백반(枯白盤)이라 한다. 약한 불에서 오래 구울수록 효과는 더욱 좋다.

※ 고백반가루와 죽염가루의 응용

① 중이염...아이들은 감기가 오래되면 중이염을 앓기 쉽다. 중이염에는 일반적으로 항생제와 소염제, 항히스타민, 때로는 해열진통제를 겹쳐서 치료하는 데 요즈음의 중이염에는 잘 낫지 않고 만성으로 가기 십상이다. 만성으로 진행된 중이염은 감기기운만 있으면 재발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조금만 피곤하면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이러한 혼한 중이염에 고백반가루와 죽염가루를 발라서 잠잘 때나 평상시에 귀에 넣어주면 신효(神效)한 효과를 본다. 진물이 날 때는 면봉이나 솜으로 진물을 닦아낸 다음 사용한다.

② 각종 피부질환...아이들이 바이러스성으로 몸에 맑은 물집이 생기면서 수두처럼 온몸에 번질 때 고백반 가루와 죽염가루를 같은 양으로 섞어서 바셀린 연고에 개어서 면봉으로 발라주면 하루 이틀 사이에 꾸들꾸들해지면서 사오일이면 완전히 낫는다.

또한 고백반 가루, 죽염가루와 바셀린(없을 경우 참기름)을 사용한 일종의 연고는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 즉 무좀, 습진, 뽀루기가 나면서 끓는데, 상

처가 나서 잘 낫지 않는 데, 발바닥이 건조하면서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 생인손 등등에 거의 다 좋은 효과가 있다.

③ 입안의 염증 및 목 안이 부은 데...여기에도 고백반가루와 죽염가루를 응용할 수 있는데 고백반가루와 오배자 가루를 사용하면 즉효를 볼 수 있다. 오배자 가루는 불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의 집인데 한약전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오배자를 구해다가 집에서 한번 씻은 다음 말려서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쓴다. 고백반가루와 오배자가루를 각각 차수저를 하나씩 컵에 넣고 끓는 물 약 100cc 정도 부어서 식으면 그 물로 입안과 목을 행구는 것이다. 아이의 경우 차수저로 두세 수저를 떠먹이는 데 삼켜도 된다. 입안의 염증이 심해서 입밖으로 까지 번진 경우는 위의 물을 숨이나 면봉에 묻혀서 입 주변을 닦아줘도 효과가 있다.

어른의 경우는 위의 물을 한두 모금 입안에 물고 있다가 뱉어낸다. 이것을 하루 두 세 번 하게되면 아주 심한 입안의 염증도 하루 이틀이면 신기하게 낫는다.

아이들의 경우 수족구병으로 입안이 헐거나 감기 뒤끝에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라색의 소독약으로는 점점 효과가 나지 않고 아이는 먹기를 거부하면서 하루종일 칭얼대기가 일쑤다. 아이의 경우 입안이 아파서 물조차 거부하다 보면 탈수증상까지 보일 수 있고 입안의 병은 쉽게 낫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고백반-오배자가루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고백반, 오배자가루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빼고는 거의 부작용이 없으

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어린 아이의 구토와 설사(소위 가성 콜레라)·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어린 아이의 경우 감기의 일종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가 흔해진다. 이 경우 갑자기 토하는가 하면, 먹는대로 설사하고 토하는 중세가 나타난다. 이삼일을 먹는대로 토하고 설사하다 보면 아이의 경우 금새 탈수가 되어 고열이 나고 위험해지는데 이럴 때 오배자가루 한수저(약 5그램) 정도를 200cc 가량의 물에 타 끓인 뒤, 하루 수차례 먹인다. 그러면서 차조와 쌀을 같은 양으로 물에 불렀다가 미음을 쑤어 죽염으로 간을 하면서 일체의 음식을 끓은 채 이것만을 먹이면 하루만에 낫는다.

⑤ 전염성 농가진·여름철에 아이들에게 흔한 피부질환인데 몸에 한두 개 농가진이 생기는가 싶다가 금새 온몸으로 번진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에게 전염시키기 쉽다. 이럴 때 고백반가루와 죽염가루를 밥수저로 한 수저씩 바가지에 넣고 물을 약 삼분의 이 가량 타서 그 물로 온몸을 십분 정도 문지른 다음 맑은 물로 한번 헹구고 그냥 말린다. 그런 뒤 심하게 끓은 곳에 위에서 얘기한 고백반·죽염·바셀린 연고를 면봉으로 발라주면 이삼일 만에 낫는다. 그리고 몸에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가급적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⑥ 피를 멈추게 하는 데·곱게 가루낸 오배자가루는 피 멎이 작용이 뛰어나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날 때 당황하지 말고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 다음(발의 경우는 즉시 누워서 발을 올린다) 오배자가루를 뿌리고 조금 지나면 피가 멎

는다. 피가 멈추면 붓대같은 것으로 싸매고 있어도 저절로 낫는데, 피둘기가 나빠서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사람은 위의 고백반가루와 죽염가루를 상처에 뿌리고 붓대로 감아주면 빨리 아물게 된다.

※ 위의 고백반, 오배자, 죽염가루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 소염제들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뿐더러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다. 점점 항생제는 균들에 내성이 생겨서 거의 효과가 나지 않을 뿐더러 장내의 세균총의 균형을 깨고 비타민 합성을 저해하고 간독성과 콩팥, 위장에 많은 지장을 주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의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마지도 농작물에 뿌리는 농약과 같은 것이다. 농약과 항생제를 비롯한 화학요법제들의 역사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농약의 남용으로 해서 물과 땅, 농작물의 질이 나빠진 것처럼 우리 몸에 농약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항생제들은 거의 비슷한 영향을 남기고 있다. 더구나 인간은 의약품과 농약, 수질 등의 환경오염까지 합쳐서 이중 삼중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해독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2. 죽염을 이용한 방법

1) 죽염의 성질과 효능

몇년 전부터 죽염(대나무, 황토, 송진, 천일염을 이용한 소금)은 우리 생활과 많이 친숙해지고 일반인들에게 그 효능이 많이 알려진 셈이다. 죽염은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이용하던 것인데 현대의 공해독 제거에 이용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

었다. 죽염은 현대의 가공할 공해독으로 인한 각종 난치병, 암, 피질 등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 다시 개발된 것이다. 원래 죽염의 온전한 효과를 보려면 아홉 번 구운 구죽염을 써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백반과 죽염을 융용하면 죽염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으며 많은 난치병을 손쉽게 치료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어찌보면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세균의 서식처라 할 수 있을 만큼 균등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0.9%라는 염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 몸의 소금성분 때문에 우리 몸은 각종 세균들에 대해 방어능력을 가지며 또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각종 독을 해독해낼 수 있는 것이다. 평소에 질 좋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현대에는 잘못된 상식 탓으로 소금에 대해 아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짠 맛의 원료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맛소금, 다시마 등의 합성조미료, 화학소금,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 있는 방부제로서의 나트륨염 등 이들의 짠 맛은 현대병의 원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현대인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짜지 않은 소금, 소위 합성 나트륨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들이 각종 성인병이 생기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 이를 두고 매스컴에서는 짜게 먹으면 안된다고 일반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겁게 먹는 사람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몸이 차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고 근육에 힘이 없다. 아이들도 평소에 짠 것을 기피하면서 과일류나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무력성의 체질이 되기 쉽다. 소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백금 성분은 뼈를 단단하게 하고 면역능력을 높이며 소화력을 높인다.

그런데 이러한 백금성분이 우수한 소금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들다. 천일염이라 해도 바다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다가 소금을 만들 때 염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시중의 천일염도 공기 중에 잘 녹지 않는다)함으로서 안심하고 사용하기 어렵다.

전통의 식생활을 보면 소금의 정수(精髓)를 섭취하기 위한 지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간장, 된장, 김치, 젓갈류 등이다. 즉 소금을 취하되 콩, 무우, 배추, 마늘, 생강, 어류 등을 이용하여 이들 식물의 영양을 섭취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소금의 독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요즈음의 우리 식탁은 이러한 조상의 지혜는 사라지고 왜곡되고 촌스러운 것으로 배척되기도 한다.

정성스럽게 잘 담구어진 된장과 간장은 그 자체가 뛰어나 식품이면서 또한 소중한 가정 상비약과 같은 것이다. 된장, 간장이 체내의 독을 풀고 영양물질이 되면서 또한 외부의 질환 등에 사용해 왔던 것이다. 요즈음 우리 몸이 약해지고 난치병에 걸리는 것은 환경오염과 더불어 이미 우리의 식탁이 우리 전통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① 비염, 축농증·감기가 오래되면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되기 쉽다. 비염이나

축농증은 난치병에 속하는 것으로 병원
에서 치료를 해도 치료를 받는 기간 중
엔 좀 낫는가 싶어도 치료를 중단하면
급세 도지는 것이다. 비염이나 축농증은
음식물에서 우유제품과 밀가루 음식을
가급적 피하면서 죽염을 탄 물로 코 안
을 씻어주면 쉽게 나올 수 있다. 아이들
의 경우 죽염으로 코를 씻기 어려우면
숨에 죽염을 발라서 잠잘 때 콧 속에 넣
어주면 된다.

코막힘이나 누런 콧물이 진득진득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죽염을 약간 짭짤하게
물에 타서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면서 코
안을 씻어주면 급성인 경우는 이삼일 내
로 즉효를 본다. 만성인 경우도 하루에
두세 차례 씻어주면 보름이면 낫는다고
본다.

② 눈병...여름에 악질적으로 유행하는
아플로 눈병이나 결막염, 혹은 눈알이 빨
갛게 충혈되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아홉
번 구운 죽염을 끓여서 식힌 물에 타서
안약처럼 눈에 넣으면 효과를 본다. 이에
더 실효한 효과를 보려면 황련이라는 약
재를 약간(약5그램)을 물에 끓여서 여과
지로 걸러 낸 다음 구죽염을 타서 눈에
넣으면 참으로 실효하다. 이것은 일체의
눈질환에 다 쓸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
는 한 두번으로 낫는다고 볼 수 있다.

③ 잇몸질환...요즈음의 아이들은 체질
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이를 우선 충치
에서 알 수 있다. 시력의 저하와 충치는
체질의 좋고 나쁨을 우선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다. 요즈음의
아이들은 이에 충치가 생기는 못해 이를
구성하는 상아질이 다 썩고 녹아 없어지
는 데 유치가 충치이면 영구치도 반드시

충치가 된다.

요즈음 아이들의 충치는 뿌리까지 썩
어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데 이는 뼈까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리
라. 평소에 일체의 인스턴트식품을 먹이
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뼈에
대한 어머니들의 바른 지식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양치질은 충치예방에 그리 큰 역할을 하
지 않는다. 충치는 체질의 약화를 의미하
고, 계면활성제와 불소가 들어간 시중의
일반 치약은 오히려 이와 잇몸을 약하게
한다. 이와 잇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평소에 죽염으로 양치를 하거나 어린아
이의 경우는 죽염가루로 맛사지를 해주
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죽염은 죽염안에
함유된 각종의 미네랄로 하여 아이들의
영양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에 아이를 위한 음식에 죽염으로 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홉번 구운 알로 된
죽염을 한두방울 입안에 넣어 주어서 양
치질을 대신하는 것도 여러가지 의미에
서 좋다.

④ 편도선염이나 목이 쉼...구죽염을
차수저로 하나 내지 반수저를 입안에서
약 십분에서 십오분 정도 물고 있다가
삼키는 것이다. 죽염을 입안에 물고 있으
면 이삼분 내로 많은 양의 침이 나오는
데 이를 삼키지 말고 계속 물고 있으면
그 자체가 치료작용이 되어서 한 두번의
실행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죽염을 침으로 녹여서 삼키는 것은 각
종의 소화기 질환을 비롯하여, 치주염,
충치예방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⑤ 아토피성 피부염(태열)...비누를 사
용하지 말고 목욕시킬 때 죽염을 사용하
는 것이다.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 아이
욕조에 죽염을 밥수저로 수북히 하나를
풀어서 그 물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다.
씻긴 다음 따로 행굴 필요도 없다. 아이
를 죽염으로 목욕을 시키면 죽염 속의
아연이나 유황 성분이 피부를 강화시키
고 피부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하여 아
이는 감기에도 강해진다.

고질적인 알레르기 피부의 경우는 목
욕 바가지에 뜨거운 물을 삼분의 이 정
도 붓고, 여기에 죽염을 밥수저로 하나를
푼 다음 그 물로 온 몸을 10분내지 15분
동안 문질러 준다. 그런 다음 한번 행구
고 수건으로 닦지 말고 그냥 말린다. 한
두번으로 효과를 보는데 알레르기의 피
부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주의하는 속
에서 죽염목욕을 습관화 하면 좋은 효과
를 볼 것이다.

⑥ 불에 탔다...불에 데인 경우 우리는
흔히 찬물로 화기를 빼는 데 물로 씻기
전에 즉시로 죽염가루를 뿌리면 물집도
생기지 않고 이외로 쉽게 화상이 낫는다.
불에 대었을 경우 병원에서는 화상으로
생긴 물집을 다 터트리고 겹질을 벗긴
다음 거기에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는
데 그러면 아프기도 하지만 세균의 감염
으로 더디 낫는다.

불에 대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로 죽염
가루를 뿌리면 잠시 따끔거리다가 죽염
에 의해 진통이 되면서 쉽게 낫는데 예
전에 우리 조상들도 간장으로 화상을 치
료한 것도 다 비슷한 이치이다.

화상의 부위가 크면 오이생즙을 내서
그 물을 바르면서 죽염을 사용하고 오이
생즙을 수시로 먹어주면 오이생즙이 화
독을 빨리 빼준다. [저작인]

편집자주 :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교과 실습을 전달하고 있는 자율학습 모임입니다.

어린이 몸의 요구와 행로, 어린이 몸의 구조와 특성, 어린이 식생활과
어린이 몸과의 관계,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어린이
성인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한몸짓기
건강요법-몸의학건강증진법에 입각해서 몸건강체조, 민간자연건강요법,
자연산 식이요법(自然産 食餌療法) 등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어린이
건강교육연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곳은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81-28

전화 : (02) 882-4705, 팩스 : (02) 878-4624입니다.

육아일기

유빈이는 당글당글해요

나 은미(전 동부 오손도손 어린이집 교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과 명예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한번 있는 건강은 되찾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빈이가 뱃속시절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듣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는 말입니다.

유빈이의 뱃속시절, 첫손자를 온근히 바라시던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몸조리 하느라 외가에 있을때, 외할머니께서는 유빈이를 안고 토닥거리며 "먹고 자고, 먹고 놀고 튼튼하게 자라거라" 하셨습니다.

친정 엄마나 아빠의 전화통화 중에는 항상 "아기는 잘자라니?" 하고 유빈이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은 아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건강한 아기는 잘먹고, 잘자고, 잘싸고, 잘노는다고 합니다.

유빈이에게 주어진 과제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지금은 엄마,아빠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유빈이의 하루생활을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건강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기들은 엄마에게 걱정거리를 한 가지씩 한다고 합니다.

아기 때문에 밤과 낮이 바뀌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유빈이는 먹는 것도 잊고 잘자요. 그대신 모유든 우유든 먹고나면 잘 토하는 걱정거리를 주었습니다.

아기는 위가 덜 발달되고 물병 모양이라며 잘 토한다고는 하지만 유빈이는 그 정도가 심해 먹은양의 반 이상을 내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소화흡수를 못하니까 몸이 약해지거나 앓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백일이 지나고서야 토하는 횟수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소화력이 좋아진 것 같아 이유식을 시



작하려 했는데 먹고나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설사를 하면 일단 장염인데 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한가지 걱정을 덜고나니 또다른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아기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나봅니다.

설사는 한달 정도 계속되었고 간신히 붙여 놓았던 것살이 쑥 빠져 날씬한 아기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유빈이를 가졌을 때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영향으로 유빈이가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영양만으로 부족하니 이유식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소화능력이 생긴 후에 하면된다는 주위의 다양한 충고 속에 유빈이는 5개월이 다 되어 이유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유식을 할 때 다양한 음식을 먹여야

건강해지고 커서 편식을 안한다기에 가능한 한 여러가지를 먹이고자 합니다.

몇번 이유식을 한다음 유빈이도 간을 한 음식을 잘먹는다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먹어서 맛이 없으면 잘먹지 않으려합니다. 아기라고 무시하고 대충대충 넘기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7개월이 지난 유빈이는 아직까지는 신체지수가 평균치에 조금 못미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누기가 쉬운지 눈뜨면 이곳 저곳 기어다니며 살피고 운동하느라 바쁘답니다.

열심히 운동한 덕분인지 팔·다리가 물렁물렁하게 살찌지 않고 단단하답니다.

할머니께서도 유빈이를 볼때마다 "당글당글하네" 하신답니다.

태어나서 걱정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지만 잘 먹고 잘 노는 유빈이는 건강한 아기입니다. 서택인

특소리

성교육 준비를 위한 연구수업을 진행하며

김 숙자(남부, 튼튼이어린이집 교사)

연구수업을 진행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특히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는 것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했다. 내가 생각하던 답을 끌어내기 위해 다그치다시피 하는 질문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조급함,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예쁘게'란 말을 많이 사용),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때로는 아이들의 말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자료도 부족하고 교사의 욕심이 지나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적도 있었으나 그러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관찰자와의 대화, 녹음한 내용 들어쓰기)가 많아짐에 따라 차츰 인내심과 여유가 생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경우 초반 일주일 정도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지만 점차 안정되어 가면서도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관심 있는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하려는 일들을 양보할 줄 알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역할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막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색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은 말로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부모의 생각이나 모습이 아이들에게 반영되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엄마 아빠의 생활 모습이 교사의 말이나 행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이란 책을 읽고 연구수업을 진행하면서, 레지오 에밀리아의 아틀리에 같은 곳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또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마친 후 밤늦게 까지 녹음한 내용을 들어쓰면서 몹시 힘들고 피곤했는데, 정말로 근무조건이 바뀌어야 한다-근무시간이 단축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근무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고 더불어 좋은 교재, 교구가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속 박물관에 견학 갔을 때 소년놀이와 소녀놀이로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해 왜 나누어져 있는 지 질문하던,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것이 인상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던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이 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어린이집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지역인

풍향

1997년도 지탁연 겨울 수련회 및 제12회 정기총회

일시: 1997년도 1월3일 - 5일(2박3일)

장소: 송실대 사회봉사관

대상: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원들

회비: 40,000원

준비물: 세면도구와 필기구, 간단한 옷차림, 개인용품

◆ 일 정 표 ◆

일 시	첫째날(1/3)	둘째날(1/4)	셋째날(1/5)
오후 7:00		세면 및 아침체조	세면 및 아침체조
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		어린이요가-박인혜	
10:00		총회	과학활동-김옥자
11:00			
12:00		점심식사	지역별평가
오후 1:00			폐회식후 귀가
1:30		소모임발표 : 국악배우	
2:00	접수 및 방배치	기,인형극, 전래동화등	
2:30			
3:00	개회식	유아교육유행(레지오, 하이스코프)+워크샷	
3:30		조선경, 정희연	
4:00	*초청강연*		
5:00	지역운동-심성구		
5:30		포레모임	
6:00			
6:30	저녁식사	저녁시간	
7:00			
7:30	조직전망에 관한		
8:00	발제	워크샷 발표	
8:30		공동체놀이	
9:00	지역조직사례발표	담당 : 이정님	
10:00	분임토론		
11:00		방별 여흥시간 후 취침	
11:30	취침		

'97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마감: 1997년 1월31일

논문제출마감: 1997년 4월30일

일시: 1997년 5월22일경

문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사물놀이 무료 강습회

지원자격: 유치원장, 교사

연수비: 무료

주최: 중원 국악기

문의: 521-3277/8

후원(사)사물놀이 한울림(김덕수패 사물놀이)

어린이 영어지도교사 과정

기간: 3개월(토)

오전 10:30-12:30

내용: 유아, 유치원 교육과정 노래와 율동을 통한 수업진행

교육활용을 통한 감각 프로그램

개강: 1996년 12월14일(토)오전 10:30

문의: 762-4558

744-4958

여성수첩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86년부터 본회의 사업취지를 알리고 그에 따른 제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수첩을 발간해 왔다.

여성수첩은 여성으로서 사는 의미, 가정과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여성노동, 여성과 정치, 환경, 문화등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록으로는 여성관련 법률, 성희롱 대응방안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책모음이 담겨 있다.

가격: 7,000원

문의: 사단법인 여성의 전화 269-2962/5

오전 10:30-12:30

소식과 소식

1.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강좌

지난 11월 9일 본회 주최의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강좌'가 장충동사무소에서 보육교사 50여명이 참석 가운데 좋은 호응을 받은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다. 이번 강좌는 '어린이 집에서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현장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직접 실시한 사례를 발표하는 형식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돌아보고 토론하였는데 교사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또 재미있게 참여하였다.

2. '96 한국여성단체연합 중간지도력 강화훈련

'96 한국여성단체연합 중간지도력 강화훈련'이 1996년 11월15일(금) - 16일(토)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관악산에서 1박2일동안 개최되었다. 이 훈련에서의 주요사항은 '비영리단체에 사회마케팅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강연(강사: 박경옥 '좋은 생각(Social Marketing Agency)' 실장)이었는데, 참신하고 이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매우 흥미로웠다. 기존의 틀을 벗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사회운동의 다원화시대에 공급자(제품) 중심의 사회운동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운동으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사회마케팅이란 비영리부문에 '판매'의 기법을 도입한 그래서 정책, 주장, 조직 등 단체활동의 모든 것을 판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예를 들어, 기금조성 캠페인, 회원조직의 관리나 확대에 판매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고, 다음 날은 조직규모별로 나뉘어 분야별 집중토의를 하였다.

3. '보육시설 확충과 질개선을 위한 현실과 방향'에 대한 행사 본회 부설인 한국보육정보연구소와 공동 개최

3-1 「제2회 민간·가정보육시설 개원요령 설명회」

「민간·가정보육시설 개원요령 설명회」가 11월15일(금)오후 1:30 - 5:00에 대학문화원 강당에서 민간어린이집·가정놀이방을 운영하려는 원장 및 교사를 대상(약30명 참석)으로 있었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맞춰 정부가 앞장서서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권장함에 따라 보육시설을 개원코자 하는 예비원장들을 대상으로 올 4월, 1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정은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정은소장의 개회사, 남미영 본회회장의 축사, 서정은 소장의 어린이집·놀이방을 개원하는데 있어 준비해야 할 설치과정, 조인숙연구원의 어린이집·놀이방 운영할 때 알아야 할 운영과정-슬라이드 상영-으로 진행되었다.

뒤이어 우리두리어린이집 안영선원장과 개나리어린이집 윤정임원장의 사례발표가 있었는데 두분 모두가 그동안 수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예비원장들에게 솔직담백하게 전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보육사업의 바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3-2 『제2회 직장보육시설 개원요령 설명회』

「직장보육시설 개원요령 설명회」가 11월 22일 (금) 오후 1:30 - 5:00에 대학문화원 강당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노조관계자를 대상(약 25명 참석)으로 있었다. 올4월에 이어 마련한 개원설명회를 2회째에는 민간·가정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로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배경은 보육사업에서 직장보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반해, 많은 분들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문의와 고민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에 직장보육시설의 특화된 설명회가 필요로 하였다.

성지혜 한국정보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시작되어 직장보육시설의 개요, 남미영 본회 회장의 축사, 서정은 소장의 직장보육시설의 형태, 이해영 연구원의 직장보육시설 개원 준비, 유정은 연구원의 직장보육시설 운영 과정등으로 진행되었다.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려는 참가자들에게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었다는 평가를 해본다.

3-3 「보육시설 운영사례 발표회」

「보육시설 운영사례 발표회」가 11/29(금) 오후 1:30 - 5:00에 대학문화원 강당에서 있었다. 대규모의 행사는 아니었지만 실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어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가득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운영사례 발표자들의 발제를 다 듣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영아보육시설 운영사례에 있어서는 영아전담시설의 다우리어린이집(원장 백해영)과 영유아 혼합시설의 예술어린이집(원장 이숙희)이 발표를 하였고, 24시간보육시설 사례는 시설의 입장에서 24시간을 열어놓고 이용자는 필요한 때 아무시간에나 맡길 수 있다는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24시간을 맡기는 즉 주간탁아를 하고 있는 늘푸른 탁아소(설선영선생님)의 사례를 들었는데 늘푸른 탁아소는 24시간 보육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설립한 영아전담시설이기도 해서 영아사례를 듣고자 하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방과후 보육시설의 운영사례는 햇살어린이집(원장 이명숙)의 사례와 대전 YWCA 신흥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자료로 보았고, 장애아보육시설은 장애아 조기교실(2층)과 놀이방(1층)을 함께 운영하는 그래서 장애아 보육은 통합보육이 바람직하다는 낮은울타리(대표 우미순)의 발표가 있었다.

4. 『출발점 평등원칙 구현을 위한 유아교육 체제 개혁』에 대한 공청회

1996년 12월 4일(수) 오후 2시-5시 교육행정연수원 4층 대강당에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주최로 『출발점 평등원칙 구현을 위한 유아교육 체제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주제발표는 이성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 하였고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윤지희(학부모대표), 한경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김상근(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이기숙(한국유아교육학회장), 표갑수(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등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지정토론에서 나온 공통된 내용은 1) 출발점 평등원칙에는 동의한다 2) 유아교육의 질적인 고양 필요하다 3) 행정업무를 하는데 위원회의 기능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어 문제가 있고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4) 유아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적 수준을 높여서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등이었고 이 날의 지정토론석에서의 핫 이슈는 보육시설은 3세미만, 유치원은 3세 이상을 교육하는 기능분담론이 제기되면서 보육계와 유치원계의 이해속에서 토론이 되었다.

5. 여연 정책수련회

지난 11월 14일(목) ~ 15일(금)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여연 정책수련회가 있었다.

지 은희 여연 상임대표의 「한국 여성운동의 미래전략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중단기 실천과제」와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및 여연과 회원단체간의 역할 정립에 관하여」라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97년 창립 10년을 맞는 여연운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조직위상과 중단기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탁연에서는 남 미영회장이 참석하였다.

6.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 추계학술대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는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의 주제를 가지고 '96추계학술대회를 11월 22일-23일 양일에 걸쳐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각계, 관계 공무원, 원장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내용으로는 기존의 보육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례분석과 문제점 찾기, 대안을 위한 조건 제시와 몇가지 유형제시등이었다. 지방에서 양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 첫날은 250명의 참가자로 성대한 분위기였는데 둘째날은 50명만이 참석해 다소 맥빠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7. 동덕여대 여성연구소 간담회

11월 27일(수) 12시 프레스센터 20층 동백실에서 여성단체장과 동덕여대 여성연구소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동덕여대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규명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지난 93년 3월, 한국여성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설립된 여성연구소가 여성운동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여성연구소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여러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자리에는 지탁연, 여연,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한여노 등이 참석했다.

8. 여성관련 복지관의 발전전망에 대한 워크숍

11월 29일(금) 2시부터 기독교교회연합회관 10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회 주최로 여성관련 복지관의 발전전망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다.

이날 워크숍은 여성관련 복지관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발제와 여성관련 복지관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발제·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9. 제 1회 시민포럼

12월 5일(목) 시민운동지원기금과 바른 경제동인회 주최로 제1 회 포럼 시민사회 '21세기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조찬 모임이 있었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경제인들 약 6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는 이 현재 전국무총리의 주제강연과 논찬, 참석자들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 지역소식 ♣

광주지역위원회

광주지역위원회는 12월10일 그림책나라 소모임의 내부 발표회를 갖는다.

'그림책나라 소모임'은 올해 4월에 구성되어 활발히 진행(회원 4명)되어 오던중 보육학교를 통해 다져진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위원회식구들에게 내부 외화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발표회는 4명의 소모임원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한권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전체 광주회원들에게 전시되어 있는 그림책 한권씩을 선정. 즉석 비평을 하는 시간 또한 가질 예정이다. 주제발표 시간엔 1)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2)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왜 읽어주어야 하는가

3)그림책을 어떻게 읽어 줄 것인가에 대한 강연과 쉬어가 는 마당으로 구연동화발표도 준비되어 있다.

전북지역위원회

전북지역위원회 '아이사랑교사회'는 12월14일(토) 3시에 원불교회관에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을 전북지역 보육시설 원장,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현사회속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을 바로잡고 평등한 성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고영자 도의원의 축사, 주제강연 1)성평등(롯데어린이집, 이해숙원장) 2)성교육(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오정현교수), 비디오 상영-어린이를 위한 성교육·내 몸은 내가 지켜요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사람들 ♣

결혼하십니다.

◇ 인천지역위원회 '새싹들의 방'교사인 박은정선생님이 12월8일,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 박은하선생님이 12월22일 결혼하십니다. 인천에 경사가 겹쳤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북부지역위원회 '하나둘셋어린이집'교사 태재원선생님이 지난 11월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출산하셨습니다.

◇ 본회 전조직선전부장 황미혜선생님이 11월초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엄마를 닮아 얼굴이 동그랗다고 합니다. 엄마, 아이 모두 건강하다니 다행이고요 빨리 쾌유되어 예전의 활기찬 모습 다시 뵙길 바랍니다.

♣ 보내주셨습니다 ♣

◇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정보센터와 부산대학교 부설 영유아보육연구소 주최로 개최한 「제1회 영유아보육세미나 영유아의 식생활지도와 영양관리」 자료집을 부산대 정보센터의 이경화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97 학년별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유아·초등학생청소년을 위한 목록」을 100부 보내주셨습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에서 출판한 「자원봉사 이렇게 합니다」,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를 보내주셨습니다.

◇ 개마고원 출판사에서 신간 「태양의 아이」-하이타니 겐지로 지음/오석운 옮김/값 6,500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자료는 연합회의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이며 자료를 열람코자 하는 회원은 사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신 단체와 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 연합회 11월 활동일지 ♣

- | | |
|-------|------------------------------|
| 11/ 1 | 조직논의 소위 / 교육토론 모임 |
| 4 | 집행부회의 |
| 5 | 수련회 준비팀 |
| 8 | 여연복지위원회 모임 / 방과후토론회 준비팀 모임 |
| 9 | 성교육 강좌 |
| 11 | 사회복지학소모임 / 집행부회의 |
| 14 | 총회준비팀 |
| 14-15 | 여연 정책위원회 토론회 |
| 15 | 민간·가정 보육시설 개원요령 설명회 / 교육토론모임 |
| 15-16 | 여연 중간간부지도력 강화훈련 |
| 18 | 집행부회의 |
| 20 | 수련회 준비팀 |
| 22 | 직장보육시설 개원요령 설명회 |
| 28 | 서울경인지역 대표자회의 / 수련회 준비팀 |
| 29 | 보육시설의 성공·실패사례 발표회 |
| 30 | 총회준비위원회 |
| 12/ 2 | 집행부회의 |
| 4 | 지방평교사분과회의 / 방과후토론회 준비팀 모임 |
| 6 | 방과후토론회 / 서경평교사분과회의 |
| 9 | 집행부 모꼬지 |

편집부에서

■ 어느새 연말이 되었습니다. 일년동안 우리모두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며 내년의 힘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도 평가를 끝내고 내년에는 좀 더 잘만드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식지가 많이 늦었지요.

1·2월호가 합본호로 2월초에 나가기 때문에 12월호를 조금 늦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개위 공청회가 최근에 있었기에 꼭 실어야 할 내용이라서 소식지가 늦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일찌감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송학놀이방, 박미숙, 이향림, 이미자, 권경순, 신경아, 김복순, 이미숙, 김금자, 우미순, 김정숙, 조원경

6개월 구독 : 김은숙, 이지애

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제작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본인명의로 아닌 타인명의로 단체명의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물손해 · 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율 목표표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놀푸른대리점은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로 PC통신으로 제공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편의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인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00원		1인당	5,77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영자 특약요율의 60%적용	
	의료실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15원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의료실비	100만원						
재산손해	전통 및 일기비용 (보험가입금액에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60% 적용)						화재보험 일반물건 차량 적용요율의 60% 적용 즉, (화재보험 일반물건 기본요율) ×(1±합인 할증요율)×60%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230원	9,800원	15,275원	24,225원		
		2등지	7,820원	12,405원	20,015원	31,195원		
		3등지	9,520원	15,215원	24,775원	39,000원		
		4등지	11,305원	18,020원	29,440원	45,650원		

(놀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